

2013 청소년 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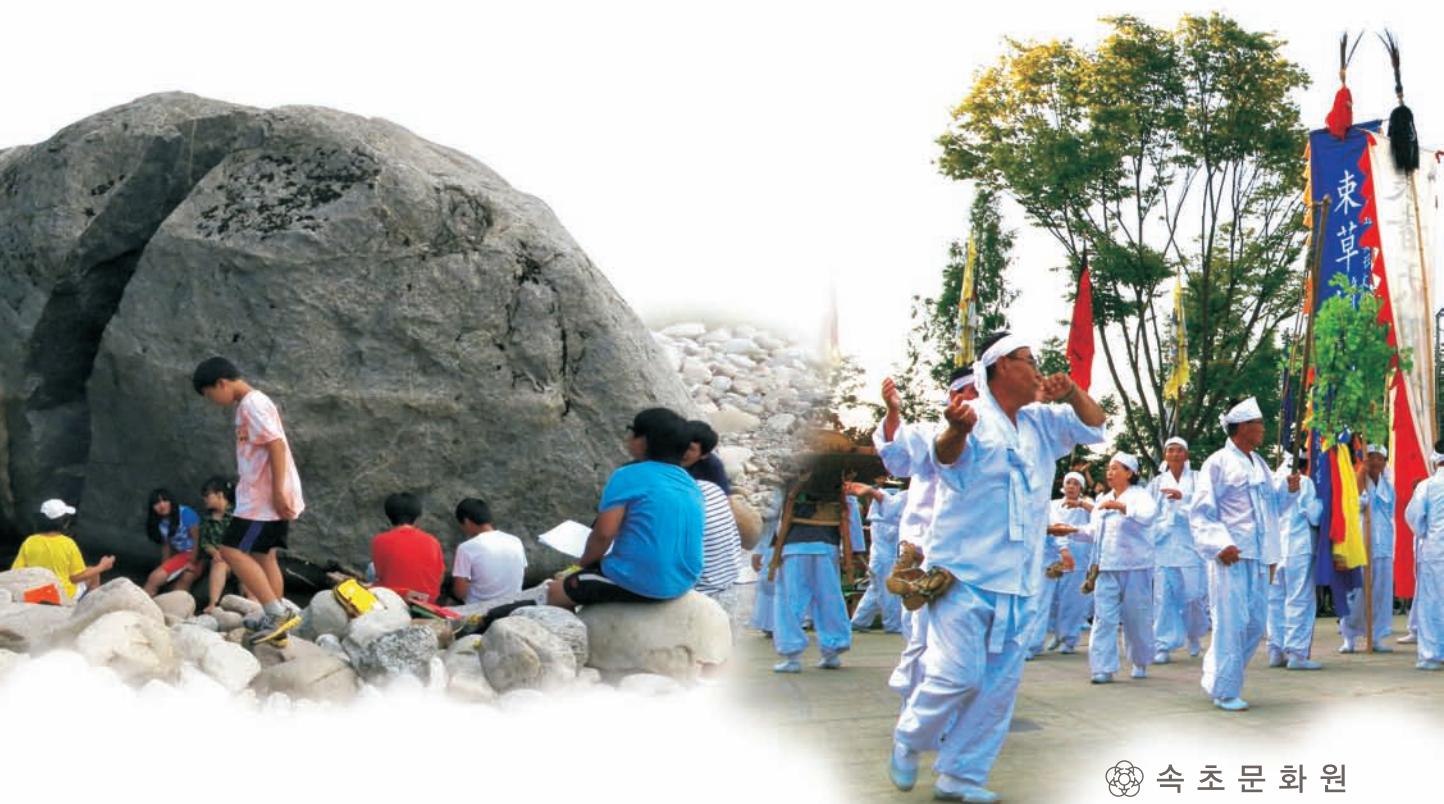


청소년이 발굴한 마을보물의 모든것!!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 - 도문동

도문동 어르신이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2013 청소년 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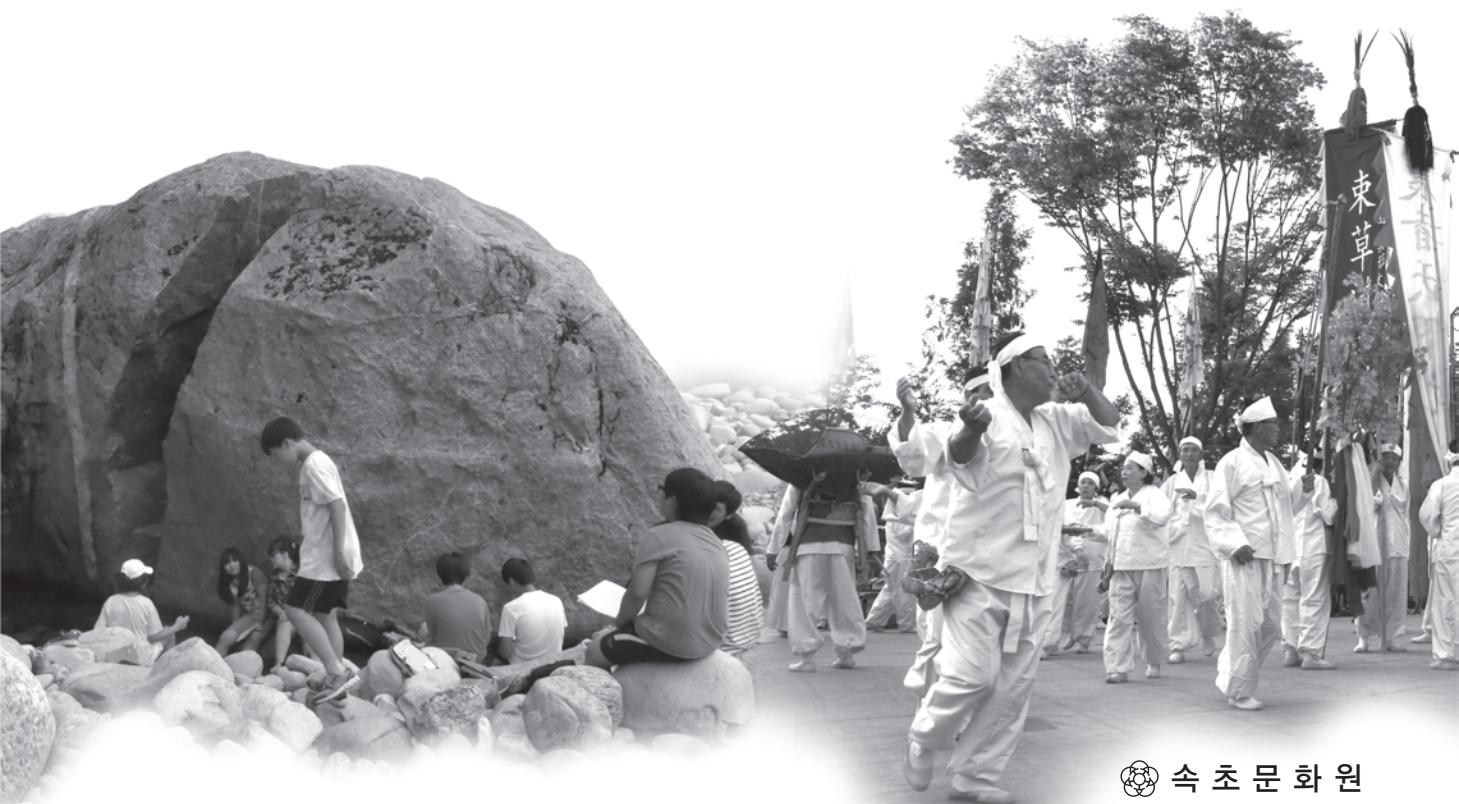


청소년이 발굴한 마을보물의 모든것!!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 - 도문동

도문동 어르신이 들려주는 마을이야기



펴낸이 박무웅  
펴낸곳 속초문화원  
역은이 김인섭, 이경무, 김은중  
편집 및 디자인 강원기획  
인쇄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주소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033)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sc2439@kccf.or.kr

이 책은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발간사

## 청소년들이 찾은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시작한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원의 방향성과 가장 근접한 문화예술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은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우리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도문동 마을을 탐방하고 조사하며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엮은 도문동지역 향토자료지를 발간한다는 목적으로 학예연구사 특강, 마을탐방, 지역어르신 대상 구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도문동의 역사와 문화라는 보물을 발굴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조사활동과 구술내용을 기록하는 활동을 낯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사선생님들과 아카데미 담당선생님들이 다독이고 격려하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것을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자신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활동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에 설렘을 느끼며 7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도문동’은 이러한 여정의 기록이자 학생들의 소감문입니다. 이 소감문을 하나 하나 읽어보니, 진정한 보물은 학생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개월간 조사하고 채록하느라 고생한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김청익, 이희진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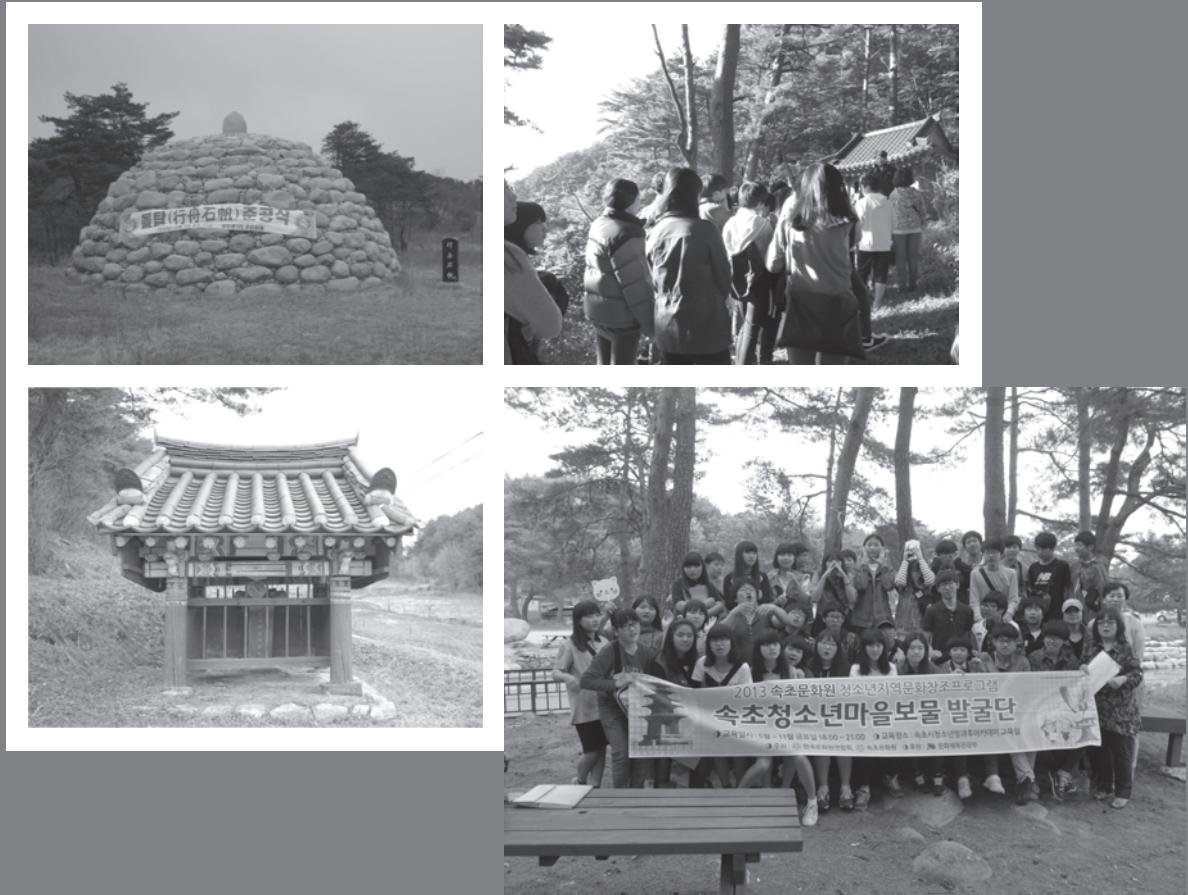
속초문화원장 박 무옹

# Contents

I. 마을보물발굴단-도문동을 찾아서 -----	005
1. 마을보물발굴단은? -----	006
2. 마을보물발굴단 활동 과정 -----	009
II. 속초의 오래된 미래 - 도문동 -----	013
1. 도문동 마을은? -----	014
2. 도문동의 역사와 지명유래 -----	017
3. 도문동의 인물 -----	023
4. 언론에 소개된 도문동 -----	025
III. 내가 달인이다 -----	031
1. 손빨래의 달인 - 김창녀 할머니 -----	032
2. 농요의 달인 - 오순석 어르신 -----	036
3. 생활 국악인 - 서은석 님 -----	039
IV. 내가 찾은 미래전통 -----	043
1. 짚풀공예 -----	044
2. 놀이문화 -----	048
3. 술 빚기 -----	055
4. 떡 만들기 -----	058
5. 옷 만들기 -----	062
V. 트레저헌터 - 스토리텔링으로 만난 도문동 -----	067
1. 벼락바위 -----	068
2. 오윤환 생가 -----	071
VI. 마을보물발굴단 활동 사진자료 및 후기 -----	073
1. 마을보물발굴단이 촬영한 도문동 -----	074
2. 마을보물발굴단 활동모습 -----	076
3. 참여학생 소감문 -----	078
VII. 도문동마을 보물 발굴 참가자들 -----	082

# I. 마을보물발굴단 - 도문동을 찾아서

속초 청소년 마을보물발굴단의 정의 및 활동내용 소개



# 1. 마을보물발굴단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향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추세다. 성장과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 문화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또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문화’라는 줄기가 삶의 곳곳을 파고드는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역문화’는 어떤 모양새를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속초문화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 결과물을 올 2013년도에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속초시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도문동’ 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도문동』은 속초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삶의 터전 아래 숨겨진 전통문화를 직접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뷰, 문화조사, 사진촬영,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취지였다. 더 나아가 지역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직접 지역문화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우선 직접 조사하기 앞서 ‘도문동’ 이란 지역을 세 가지 콘텐츠로 접근을 했다. 첫 번째는 ‘내가 달인이다’로 도문동의 전통과 관련된 직업과 인물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찾은 미래 전통’은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도문동 미래의 전통문화를 조사, 세 번째 콘텐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 – 도문동

츠인 ‘트래져 헌터’는 도문동의 특색 있는 장소를 찾아 우리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런 활동들은 5명이 한 모둠이 되어 모둠별로 진행을 했고, 실내조사와 전문가와 함께 한 현지답사, 모둠인솔강사와 함께 한 현지조사를 번갈아 실시하였다. 학예사, 큐레이터 등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성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또한 1박 2일의 집중조사 캠프를 통해 일일 현지조사로는 부족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런 과정들은 보조강사를 통해 기록, ‘속초시문화예술네트워크 문화마루’ 카페를 통해 공유되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도 마련을 했다. 현지 조사한 녹음파일을 일일이 다시 들으며 채록한 기록물과, 실내에서 활동한 다양한 결과물을 가지고 ‘도문동 역사·문화 스토리북 제작’ 하는 것으로 7개월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문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알다시피 예술 중심주의로서의 문화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성장 담론의 문화적 버전인 한류와 문화산업론이 우리의 대안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주체적 삶’이 문화의 한 대안은 될 수 없을까?

청소년이 만들어 갈 문화. ‘지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기반 위에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 그 답을 올 한해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도문동’에서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된 일은 참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을 읽으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2.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 활동 진행과정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의 활동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돌아보자.

분류	차시	프로그램 과정
O.T 및 문화 조사에 대한 이론, 특강	1	1) 강사 소개 2)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내용, 장소, 방법 공유 - 실내교육장소 : 방과후아카데미 실외교육장소 : 도문동 일대 -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과 유사한 결과물이 담겨져 있는 책을 가져와 보여 준 후 프로그램의 방법을 공유, 등기 유발 - 채록하는 방법, 문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 - 프로그램의 전반적 흐름을 이야기 - 조사방법 연습 - 조사방법을 연습한 후 선생님이 몇몇 아이들 채록을 가지고 장단점을 지적
	2	1. 학예연구사 특강 1) 강사 소개 : 속초시립박물관 박찬웅 학예사 2) 과정 : 속초문화의 이해 - 속초문화의 특징과 도문동에 대한 이해 -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3	1. 문화조사 기술의 이해 2. 과정 - 모둠구성 - 모둠 구성원 중 질문을 받을 아이와 질문을 할 아이들, 그리고 기록하는 아이로 구분

분류	차시	프로그램 과정
현장조사 이론 습득 및 현장조사, 채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하면서 질문 받는 아이의 집을 찾아가는 연습 : 학교 정문 혹은 후문을 기점으로 하여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li> <li>- 조사 방법을 연습 후 선생님이 팁 제공 : 적절한 질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등</li> </ul>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조사 준비</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장 및 모둠을 재구성 : 1학년, 2학년을 각각 3조로 나누어 구성</li> <li>- 다음 차시에 나갈 현장조사를 위한 예행연습</li> <li>- 술, 떡, 국악인, 문화재, 학무정, 오윤환선생 생가 등 6분야로 나누어 모둠별로 조사 연습</li> <li>- 선생님이 가지고 온 질문지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무얼 묻기 위한 질문인지, 질문지에 적힌 질문 외에 또 어떤 질문을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둠별로 가르쳐 준 후 연습</li> </ul> </li> </ol>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조사 : 마을주민의 삶과 문화 배우고 이해하기</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 떡, 국악인, 농요문화재, 학무정, 오윤환선생 생가 등 6분야로 나누어 모둠 별로 조사</li> <li>- 떡에 관한 정보 제공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모둠이랑 합쳐서 조사 진행</li> </ul> </li> </ol>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둠별 발표를 통한 정리된 내용의 공유와 발표 과정을 통한 리더역할 강화</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분야에 대한 조사를 정리 후 발표, 공유</li> <li>- 대다수가 채록한 것을 정리하지 않아 녹음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채록</li> </ul> </li> </ol>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 전통에 대한 이해</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지명, 놀이, 빨래터, 짚풀공예 등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li> <li>- 모든 아이들에게 질문지를 주고 녹음은 2명을 지정</li> <li>- 질문하는 방법, 주의사항을 조별로 다시 공부</li> <li>- 질문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상세한 설명</li> </ul> </li> </ol>
	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지명, 놀이, 빨래터, 짚풀공예 등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현장조사</li> <li>- 모둠 선생님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질문의 다양성과 아이들의 적극성이 유발</li> </ul> </li> </ol>
	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 내용정리와 채록</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록에 대한 각자의 느낌에 대한 질문</li> <li>- 현장조사에 대한 조언</li> <li>-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채록, 몇 번을 되풀이 읽고 들으면서 집중</li> <li>-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충 설명</li> </ul> </li> </ol>
조사정리, 채록, 특강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 내용 발표 및 내용 공유</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록방법을 다시 알려 주고, 모둠별 채록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li> <li>- 내일 진행 될 프로그램을 소개</li> </ul> </li> </ol>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 – 도문동

분류	차시	프로그램 과정
	11	1. 학예연구사 특강 1) 강사 소개 : 국립민속박물관 김창호 학예연구사 2) 과정 : 문화자원 조사 및 정리방법에 대한 이해 - 학예연구사는 어떤 사람일까? - 민속의 의미는 무엇일까? - 왜 민속조사를 할까? - 민속조사 시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
집중조사 캠프	12	1. 마을의 새로운 자원 탐사 1) 상도문 일대의 자원을 조사 - 벼락바위 / 얹힌 설화를 알아보고 스토리텔링 만들기 - 술, 떡, 길쌈 분야 조사 후 채록 2) 상도문일대 조사 후 마을지도 만들기 - 4모둠으로 나눠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본 후 마을지도 만들기
정리 및 채록, 보충탐방 계획	13	1. 조사 내용정리와 채록 2. 과정 -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충 설명 - 채록하는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에 대해 채록의 중요성 강조 -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눔
	14	1. 조사 내용정리와 채록 2. 과정 - 채록한 내용 다시 확인하고 보완. 오타 확인 작업 - 벼락바위에 얹힌 스토리텔링 만들기
	15	1. 조사 내용 보완 정리 및 채록 2. 과정 - 채록한 내용 다시 확인하고 보완 - 채록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상상해서 그리기. - 벼락바위에 얹힌 스토리텔링 만들기
	16	1. 보충탐방을 위한 준비 작업 2. 조사 내용 보완 정리 및 채록 3. 과정 - 보충탐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 - 그동안 진행했던 채록내용을 다시 정리. 책 만들기 위한 자료를 준비 - 채록한 내용 다시 확인하고 보완.
	17	1. 도문농요를 관람 2. 도문동 마을 투어 3. 과정 - 아이들을 위해 도문농요를 마을 어르신들이 시현 - 학무정, 오윤환 생가, 빨래터, 성황당 등을 투어하며 그 동안 채록한 내용을 모둠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강사선생님이 보완
	18	1. 책자발간에 들어 갈 수업 소감문이나 감상문 쓰기 2. 과정 - 책자 발간을 위한 소감문이나 감상문을 쓰는 시간

분류	차시	프로그램 과정
정리 및 발표, 마무리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li> <li>- 1학년 친구들에게 2학년이 썼던 내용을 읽어주고, 보완점과 잘한 점을 공유</li> </ul>
	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둠별 발표를 통한 정리된 내용을 공유</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채록하고 정리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li> <li>- 술, 떡, 농요 문화재 등 1차 6개, 2차 5개 분야를 조사하고 채록</li> </ul> </li> </ol>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책자 발간을 위한 자료의 정리와 편집</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자의 목차를 보며 필요한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li> <li>- 추가적 내용을 다시 보완, 정리</li> <li>- 책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li> </ul> </li> </ol>
	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했던 프로그램 마무리</li> <li>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정리 및 발표</li> <li>-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마무리</li> <l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의 느낌이나 생각 발표</li> </ul> </li> </ol>



## Ⅱ. 속초의 오래된 미래-도문동

- 도문동의 역사와 지명유래
- 도문동의 인물
- 언론속의 도문동
- 어르신의 구술



# 1. 도문동마을은?



돌탑근처에서 촬영한 도문동마을

속초시 대포동 도문동은 설악동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속초와 양양 경계지점인 설악해맞이공원 건너편 설악산 진입로 초입부터 목우재터널 앞 쌍천 도문교에 이르는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이 되었고,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를 실시하면서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가 합쳐져서 도문동(道門洞)으로 불리고 있다.

도문(道門)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내려오고 있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로 설악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해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 있다가 훌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다고 한다. 이 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 하여 도문(道門)이라 불렀다. 또 다른 유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설악산 와선대에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곳에서 길을 물었다고 해 도문(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고 해 생겨났다는 설도 있다.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상도문마을은 설악산과 동해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총 12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돌담과 한옥의 멋스러움이 배어나는 마을은 1978년 강원도로부터 한옥마을로 지정됐다.



비교적 옛 모습을 간직한 도문동 가옥

남쪽에는 설악의 맑은 물이 흐르는 쌍천이 자리 잡고 있으며, 봄이면 꽃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착각을 자아내는 벚꽃나무 가로수 등의 수려한 경관, 여름에는 은어, 동사리 등 많은 민물고기가 자라고, 설악산 저항령 계곡이 마을의 운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북쪽에는 달마봉 산맥에 이어 두루봉과 청대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동쪽 4km거리에 동해바다가 있고 또한 지역에서 으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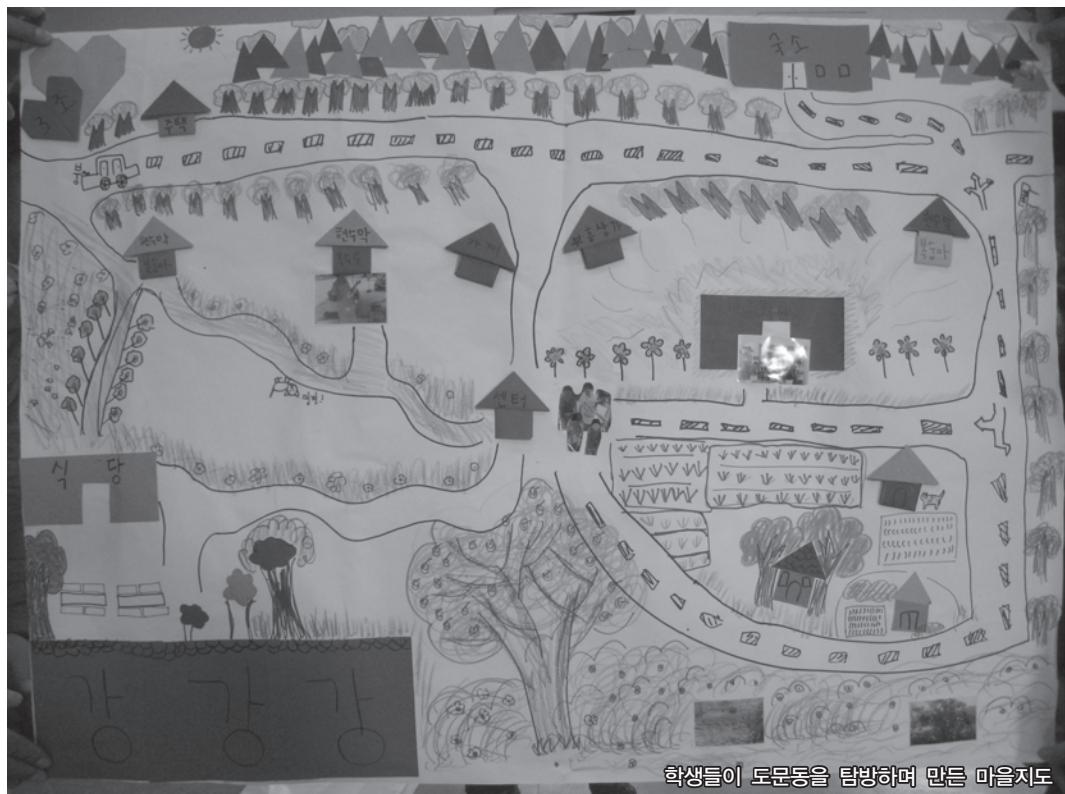
옛 선비의 자태를 보는듯한 송림군락지, 전통적인 한옥과 어울리는 돌담과 미로를 찾는 듯 한 돌담길, 옛 농사일에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메나리 농요 등이 자랑이다. 마을에 위치한 속초 8경 가운데 하나인 학무정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시내와 자연경관이 수려해 묵객들이 머물면서 시조를 주고받았던 야외학당으로 유명하며 주민들의 인심이 좋아 예부터 선비들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또 해주 오씨, 강릉 박씨, 경주 김씨, 연일 정씨, 밀양 박씨 등의 집성촌으로 마을이 조성된 지 500여년에 이르며 오씨의 경우 7대째 살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원주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의 단결력이 강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며 예를 중히 여긴다.

마을사람들이 온순하여 다툼이 없으며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서로 돕는 정신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마을 제사 때 서로 청하고 정초에는 세배를 빠짐없이 나눔은 물론 범죄 없는 마을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도문농요는 영북 지역의 농경마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농요가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발굴단 – 도문동

이렇게 도문동마을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아직 옛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 대표 농촌마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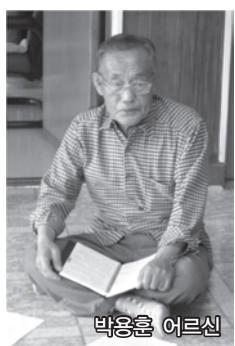


## 2. 도문동의 역사와 지명 유래



학무정 근처에서 촬영한 도문동

도문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도문동이 왜 도문동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전설과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도문동에서 86년을 살아오신 박용훈 할아버지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박선생’으로 통하신다는 할아버지는 교직에 몸담으셨던 과거를 가지고 계신다. 모르는 게 없다는 할아버지를 만나 도문동의 역사와 도문동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았다.



조사자 : 도문동의 이름은 왜 도문동인가요?

구술자 : 도문동이라 왜 했냐? 고걸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가만 있으라. 프린트 가져오게 여 이거 학생들 쓸라 그래? 이 도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에 도문동 지금은 상도문이거든? 여기 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은, 옛날에 신라시대에 원효대사하고 의상 대사가 설악산 계조암 오늘 이제 수도암 계조암이라고 하는 요기 저 암자잖아. 수도암 가는 길에 세 가지 설이 있어 어디에 왔느냐면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라는데가 있어. 요기 넘어가면 강선리 라는데가 고 요앞에 오다가 계조암 거기 왔다가 신선 그 옛날에는 옛날에 신선이라는 거 음... 선녀들이 그러니까 신선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설악산으로 이제 그게 계조암으로 가다가 도문에 왔다가 이제 도문에서 딱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왔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이 전체가 숲이니까 숲에서 우아한 소리가 느껴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그 원효대사가 지팡이를 딱 꽂아놓고 도를 터득하면

불교도를 터득한곳이야. 또 한 가지는 강선에서 신선이 강선에서 여강선지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강선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강선이라는 마을에는 신선이 내려왔다고 강선이야. 강선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신선이 강선에 내려왔다가 설악산으로 가는데 예..... 도문에 와서 길을 물었어요. 설악산 가는 길이 어디냐 옆에 도움지리는 이 도문지라는 데를 물어가지고 비선대와 와선대라는 것이야 와선이라는 것은 신선이 놀았다는 것으로 되있거든 그때 와선대 와선 한잔 누어 있다가 고이 올라가는 비석이라는 테가 있어요. 가봤나 너희들 가봤나? 비선대라는 곳이 있어요. 와선대 누었다가 비선대에 가서 와선대 밑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더군. 도문에 와서 길을 물었다. 또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여기에서 길을 묻고 계조암으로 가는 길에 도를 터득했다 하고 그리고 이 옛날 여기 와선 이제 옛날엔 수도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를 부처님한데 도를 얻었다는 거거든? 수도 끝에 항상 이 마을때 물었다고 해서 여기가 도문리. 설악산으로 가는 관문이야. 신라 원효 대사가 와서 길을 물었다. 강선리에 신선리로 내려가서 그래 비선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이 문을 통해야지만 설악산으로 갈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도문이라고 하는 거지. 상도문이라고하는 이름은 이조시대에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 여 원래는 도문인데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이렇게 되있었어. 그래서 이제 도문이란게 불게 됐지.

도문동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의 전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전 조사에서 미리 알게 된 이야기 이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직접 듣고 보니 또 다른 감동이 왔다. 할아버지께서 이 이야기들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동네도 어떤 전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졌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사 해보아야겠다. 도문동이라는 이름 말고도 다양한 이름으로 마을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그 이름들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그 이름마다 유래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구술자 : 근데 그거 유래란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이라는 것이 행정구역상으로 정해 놨거든! 상도문이라는 거는 도문이라는 이름 거기에서 상도문이라 놓고, 여기 내려 가면은 옹구점이라는 마을이있어요. 옹구점 마을 그걸 이제 상도문 이후라고 하는데 옹구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행정구역상 상도문 이후야 옛날에 지금 보통으로 토기 뭐 말하자면

저 장독 같은거 이런 걸 만드는 마을이야. 거기가 어 거기서 거 옹구점 마을이라고 하고, 고다음에 토기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니깐 행정구역상으로 상도문 이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 옛날 옹기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어 그래서 옹구점.

그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예... 이제 고 옆 뒷동네 거 종도문이라 하는게 있지 중도문이라 하는 것은 중간에 세겨있다고 도문이라는 곳은 옛날에 마을이 없던 곳이야 마을에 지금은 부칠만한 그 하도문도 마찮가지거든! 아마 역사적 유래가 없을 거야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로 쭉 내려가면은 산골이있지? 월래 우리 마을 우리시대 항구야 너희들 저기 양양에 가면은 남대천 물이 쭉 내려가 가지고 그 뭐야 흄... 연어가 많이 나는, 그 수산이라든가 수산? 거기에는 이조시대에 항구였었어. 항구였었고 고 다음에 항구가 어디였었냐면? 대포 고가 항구라고 거기서 요긴 해군기지야 해군기지. 대포 항구라고 해서 행정 구역상으로써 새로 이름이 들은 것이 상도문이야 그리고 중도문 하도문 상도문하고 이제 도항하고 해군기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실이야 역사적으로 나와있고.

사전 조사에서 도문동이 ‘그망골’, ‘옹구점말’ 등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선 시대에 해군 기지였다는 사실은 새로웠다.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고,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또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이산옥 할아버지께서도 도문동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여 찾아뵈었다. 도문동은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얹힌 이야기도 많을 것 같아 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울산바위 이야기가 아니라, 울산바위에 있는 처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조사자 : 네, 어르신 그럼 울산 바위나 설악산에 대한 다른 이야 기는 없으신가요?

구술자 : 북쪽으로 올라가면 웅장한 바위가 있지. 이 바위는 울 산에 있었는데, 강원도 금강산에서 봉우리를 모집하니, 자신 있 는 큰 바위는 금강으로 선착순으로 오시오 하는 소식을 듣고 울 산에서 출발하여 석 달 열흘을 거쳐 현 위치에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전부 모여서 와도 터를 받지 못한다 고 하여, 현 위치에 머물게 되어 울산에서 온 바위라 하여 울산 바위라 하였으며, 상단에 처녀상이 있지요. 이 처녀상은 모친이 병중에 있는데, 꿈에 선몽하길 울산바위 상단에 천생 불로초가 있으니, 그 풀을 뽑아 달여서 모친을 먹이면 병이 낫는 것은 물 론 장수한다는 꿈이었어.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울 산바위를 올랐는데, 오르다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여 생을 마무 리했다고 그래. 그 자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처녀상이 새겨졌으며, 그 지극한 정성이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지.

울산 바위에 처녀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지만, 그 처녀상에 그러한 전설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흔히 보이는 울산 바위 쪽이 아니라 그 뒤 쪽에 처녀상이 있다고 하니 울산 바위에 갈 일이 생기면 꼭 확인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책으로 공부 하는 것 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것 같다.

박용훈 할아버지께서 상도문 지역의 명소와 자연환경, 문화에 대해 일일이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셔서 한 장의 종이에 글로 써서 알려주셨다.

- **거망동(그망골)** : 마을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적으로 상도문은 행주적으로 생겼다.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어 거망동이라 불리던 것이 변하여 그망골이 됨.
- **소태골** : 마을뒤에 있는 골짜기.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 배의 둑대에 해당하는 형국.  
돛대골이 변하여 소태골이 되었다.
- **대사동(절골)** : 큰절이 있었다고 하여 대사동이라 불림
- **싸리재** : 상도문 용구점마을과 노학동을 연결하는 고개.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재. 고개에서 살인사건이 있고 난 후 살인재, 살인고개라고 불렸다고 한다.
- **옹구점말(토기점)** : 상도문 동쪽에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행정상 상도문 2구)  
일명 토기점 또는 점말이라고 한다.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 주봉산(주왕재) : 마을 서북쪽 척산리와 경계에 있는 산. 산의 모양이 봉황의 형국이라고 한다.
- 벽락바위 : 상도문 2구 옹구점말 입구. 쌍천가에 있는 바위가 크게 갈라져 있는데, 벽락을 맞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 육모정(학무정) : 마을 앞 남쪽 소나무숲에 있는 육각정으로 된 정자. 원명은 학무정. 일제시대 이 마을 출신의 학자 매곡처사 오윤환선생이 세웠다.
- 망곡터 : 조선 고종황제 승하 후 돌로 제단을 쌓아 3년동안 배상복을 입고 북쪽을 향해 곡을 하며 제사를 지낸 곳으로 후손들이 이곳에 충효비를 세우고 망곡터라 불렀다.



- 효자각 : 강릉박씨 휘 지의공. 손가락을 배어 피를 내 어머님의 생명을 연장시킨 사실이 알려져 나라에서 선려각을 하사받고 후세 문중에서 효자각과 효자비를 세웠다고 한다.(비문 명선담은 : 도리킬수 없는 목숨을 다한 효자)

- 교지비석 : 정조3년(1778년) 교지받고, 영조34년 대도호부위정사 오대산사고 착봉수위. (교지와 첨지는 속초시에 보관)
- 쌍천 : 설악산 발원지. 마을을 지나는 쌍천은 1940년 이전까지는 사계절 마르지 않고 깨끗한 물의 흐름이 좋아 사계절 따라 송어, 연어 등 바다에서 산란을 위해 올라와 서식. 주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작살, 뭇 등 도구로 어획하였으며, 장어, 은어, 새우 등 많은 어종이 서식. 부락민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철엽이라는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 소(물웅덩이) : 쌍천내에는 소 3곳이 있었다고 한다.
  - 벼루(배루)소 : 깊이 약 150cm, 넓이 약 20평정도. 벽락바위 부근
  - 훈끼소 : 상도문마을 부근, 또갓소 : 하도문



- **물안골** : 마을 앞 쌍천 건너편 큰 골짜기. 물을 안고 돈다고 하여 물안골이라 한다. 식물이 무성하여 목 측시에 많이 이용한 곳으로, 목동들이 소 몰이와 땔감이용, 소풀 또는 새집 둘치기, 송구벗겨먹기 등 자연을 이용한 곳이다.
- **야경돌기** : 동절기에는 주민들이 조를 짜서 널빤지 두 개를 두들겨 소리내어 깊은 잠을 자는 주민을 깨워 도난과 화재위험을 일깨워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



- **지소** : 주변에 자생하는 닥나무를 이용. 삶아서 둘이 방망이를 두들겨 지물이 없던 시절 한지(넓이 3가지)를 생산하여, 결혼, 상례, 제사 등의 중대사에 널리 이용하였다.



- **잿가마(잿가메)** :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진흙으로 기와를 만들어 구워 마을 초가집 대신 기와지붕으로 이용했다.



성황당



성황당 내부

- **성황당** :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건축연대는 미상. 근년에 와서 새로 건축하였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모두 찾아볼 수 없었지만, 텁방을 하며 상도문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3. 도문동의 인물 (매곡 오윤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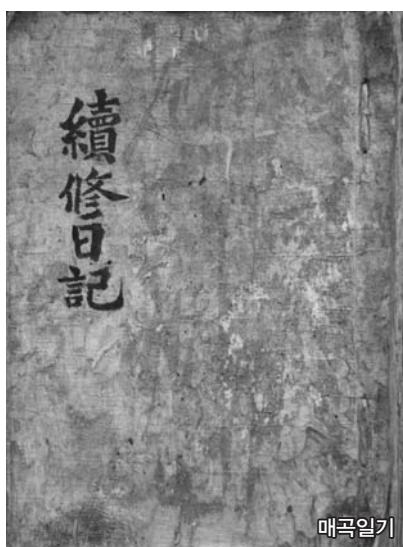


도문동 마을을 조사하며 박지의 선생과 효자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지역에는 박지의 선생님 말고 또 어떤 위인이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겨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를 찾아 도문동 지역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니 매곡 오윤환 선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매곡처사 오윤환(1872~1946)

구한말에 태어나 해방 이듬해까지, 전 생애에 걸쳐 청명한 선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 속초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교육자다. 자는 성빈(聖彬), 호는 매곡(梅谷) 본관은 해주이다.

조선 고종9년(1872)에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에서 태어난 매곡 오윤환 선생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다. 율곡 이이의 사상을 계승한 매곡 선생은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와 학문연구, 제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3·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고 일제의 단발령과 창씨개명에도 절대 굽하지 않고 반대하였다. 강한 주체의식으로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한문서당을 열어 민족의 뿌리를 잇는 교육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평생 한복에 상투를 틀고 생활하였는데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가 상투를 풀 유일한 날이다.

그는 기록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는데 19세 때부터 74세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일기를 썼다. 55년 동안의 일기는 매곡일기라는 이름으로 모두 3권이 남아 있는데 우리

지역 선비의 일상과 농경생활, 날씨 등을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매곡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는 효행을 실천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평생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인생의 말년인 1984년에도 상도문리 쌍천 옆 푸른 송림 속에 친척들과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학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많은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곡처사’ 또는 ‘오학자’라 부르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유봉정(留鳳頂), 상봉정암(上鳳頂庵)이 있다. 1946년 7월에 별세하였다.

한문본인 『매곡유고(梅谷遺稿)』는 매곡 선생의 한문시와 여러 글들을 묶어 1980년 건곤 2권으로 출간하였다. 건(乾)에는 매곡선생 영정과 학무정 전경이 수록되어 있으며 어경학의 서문, 7언 자작시 312편, 학정상량문, 학무정서, 학무정기 80편, 외지인 한시 120편이 수록되어 있다.

곤(坤)에는 제문, 묘갈명, 유금강실기, 동년계서문, 선조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책자다. 건권에는 신흥사, 계조암, 학무정에 대한 다양한 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곤권에는 선조의 행장과 지금은 볼 수 없는 묘갈명문들이 수록되어 있어 문헌사료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상징50선에서 수록된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매곡 오윤환선생님 같은 위인이 우리지역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 뿌듯함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 4. 언론에 소개된 도문동

‘도문동마을은 어떤 곳일까?’ 란 질문을 하며 생각한 것이 도문동 관련 기사를 찾는 것이었다.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설악신문을 중심으로 찾은 기사는 도문농요, 마을축제, 마을 사람들, 쌍천 등 주제도 다양하고 기사량도 정말 많았다. 그 중 도문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사를 모았다.

강원도민일보 13. 09. 11



### ▶ 속초 도문농요전수관 조감도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신축공사가 11일 오후 3시 학무정 옆 도문동 산33-4번지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된다. 도비 6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59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속초 도문농요전수관은 전승장비보관실과 연습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명실상부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동북부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속초 도문농요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급을 위해 속초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한편 속초도문농요는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농경사회의 전통노동요로 1990년 대 초에 가사와 전승실태가 조사된 이래 지난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상과 제44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7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지난 2008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속초도문농요보존회’와 더불어 기능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이 지정되는 등 전승체계를 갖췄다.

- 속초/최 훈

강원도민일보 09. 01. 30

## ▶ 쌍천 치수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 요놈 매어 매어나 주게 / 다함께 논김을 매업 보자 / 산들산들 부는 바람 / 모시적삼 입고 아어지고 / 시원한 벽중에 적삼 입고 / 일을 하세 / 동해나 동창 솟은 해가 / 반공중에 높이 떴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돼 있는 속초의 ‘도문농요’ 한 대목이다. 속초시 상도문리(上道門里)에서 농부들이 김을 매면서 부른 노동요다. 이에서 알게 되듯 넓은 뜰을 바탕으로 형성된 농경마을 도문리는 백두대간이 동해 바다를 압박하는 영동지방으로서는 얻기 어려운 평야 지역이다.

평야 지역이니 물론 도문리 마을을 끼고 흐르는 물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이름 하여 쌍천(雙川)이다. 그대가 내설악으로 백두대간을 올랐다면 여러 시간 걸어 마침내 마등령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눈앞에 즉각 외설악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것을 보게 된다. 눈을 돌리면 세존봉과 장군봉 그리고 봉화대 바위봉이 우뚝 솟구치고 그 바위 능선이 다시 화채봉에 이어져 드디어 대청, 중청을 일으켜 세운 형세도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이들 수려한 봉우리들을 휘돌아 내려 흐르는 물줄기를 발견할 것이니, 그게 바로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勿淄)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쌍천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를 이루며 하류에서 두 가닥으로 나눠져 흐르기에 쌍천이라 불리게 됐다. 쌍천변 아름다운 송림 속엔 매곡처사 오윤환의 지은 학무정도 있다. 그대는 송림 속 육모 정자 학무정에서 전통 한옥 마을을 관망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영랑호나 청초호처럼 관광 명소로 관심을 끌어야 하는 곳임에도 쌍천은 늘 갈수기나 가뭄 때에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몇 년 전엔 양양군과 속초시가 취수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고, 본격 쌍천지하저수지 건설로 또 한번 뉴스를 타더니, 이번엔 쌍천 상류의 물이 한파로 얼어 취수가 어렵게 돼 속초시민들이 갈증 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 유명한 저수지인 제천의 의림지나 김제의 벽골제 모양 쌍천을 대상으로 한 본격 치수 및 관광 사업이 뭐 좀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

- 이 광식 논설실장

강원일보 10. 08. 26

## ▶ [新 강원기행]상도문리 사람들

“전통 살아 숨 쉬는 테마마을 … 한 번 찾으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을이지”

◇김정수(여·83)씨 : 속초 8경 가운데 하나인 학무정을 지은 시할아버지 매곡 오윤환 선생의 며느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현재 아들까지 6대째 생활하면서 생가를 지켜나가고 있다. 24살에 시집와 시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뵙지는 못했지만 숨을 거두는 날까지도 일기를 쓰는 등 평생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다.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된 시할아버지의 생가가 영원히 보존됐으면 좋겠다.

◇오세권(50)·함종남(여·58) 통장 부부 : 마을 앞에 드넓은 쌍천이 흐르고 숲 속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 80% 이상이 원주민들이라 서로 정을 나누며 가족같이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이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테마마을로 만들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다.

◇오순석(72)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장 : 선조들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노동요인 도문메나리농요는 2003년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제44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는 등 속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토민속자원이다. 도문메나리농요보존회는 주민 60명으로 구성돼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지역의 향토 민속예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매주 모여 연습을 하는 등 전수에 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노인회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전수관 건립이 시급하다.

◇김순덕(여·68)씨 : 마을 주민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농촌지역이라 특별한 소득이 없어 여름 피서철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상도문리 한옥마을을 찾아오면 고향의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다.

◇김훈기(74) 상도문리노인회장 : 5대째 상도문에서 생활하고 있다. 농사 지으면서 밥 먹고 살기 바빠 여유가 없이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숲과 개울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마을이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곳임을 새삼 느끼고 있다. 여생을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대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김순애(여·57)씨 : 21살 때 시집와 도문동을 떠난 적이 없다. 젊었을 때 도시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정이 많이 든 마을이다. 이곳에서 생활하기에 주변환경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시내도 멀지 않고, 주변에 나무들도 울창하고, 문을 열면 쌍천이 눈앞에 펼쳐져 젊은이들이 귀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영자(여65) 상도문부녀회장** : 주민들이 모두 한가족 같아 마을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모두 가족일처럼 팔 걷고 나선다. 마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어르신들을 사시사철 편안하게 모셨으면 좋겠다.

◇**윤복수(여58)씨** : 양양에서 시집와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마을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김미자(여54)씨** : 마을이 설악산 길목에 위치해 있어 설악동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번에 마을 대부분이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돼 부자마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태균(12)-오균(10)군 형제** : 3주 전에 상도문으로 이사를 왔는데 시내와 달리 뛰어 놀 곳이 많아 좋은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사를 온 지 얼마 안돼서 인지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속초 :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강원일보 06. 08. 01

## ▶ 오윤환 선생 생가 문화재 지정

◇**속초시 도문동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가**

강원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 함경도식 ㄱ자형 겹집 … 변화과정 그대로 담아

속초시 도문동 매곡 오윤환선생의 생가는 지난달 28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37호로 지정 됐다. 오윤환 선생 생가는 19세기 전반에 지어진 전형적인 함경도식 ㄱ자형 겹집형식의 기와집으로 겹집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전통가옥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를 인정 받았다. 전면 4칸, 측면 2칸의 생가는 부엌 앞에 외양간 또는 창고가 붙는 함경도식 온돌중심의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형태이며 부엌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연결돼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오윤환선생은 속초지역의 유학자로서, 호는 매곡(梅谷), 자는 성빈(聖斌)이며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반대와 3·1독립운동을 지휘, 고초를 겪기도 했다. 시는 “이번 지정은 가옥의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가옥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오윤환 선생)의 문화사적 가치도 높게 평가한 것이다”며 “생가에 대한 보수공사와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속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점, 강원도지정문화재 5점, 강원도문화재자료 5점으로 총 14점의 문화재가 등록돼 있다.

-朴起容기자 kypark@kwnews.co.kr

설악신문 13. 12. 09

▶ 1954년 갑오년 수해 유실됐던 돌탑 1996년부터 마을주민들 노력  
결실 돌(돌탑) 달고 나아가는 배를 뜻 해 전통문화 자긍심과  
마을 안녕 기원



상도문 1리 주민들이 17년간의 노력으로 복원한 돌탑(행주석범).

1954년 갑오년 수해로 완전 유실 되었던 돌탑을 속초시 상동문 1리(도문동) 마을주민들이 17년간의 노력 끝에 마을 하천변에 다시 복원하고, 지난 5일 속초 전통문화 마을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행주석범(行舟石帆, 돌탑)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된 상도문1리(통장 오세권, 63세) 행주석범은 지름 10m, 높이 7m의 반구모양으로 속초8경 중 1경인 학무정 앞 쌍천을 따라 300m 가량 동쪽으로 내려간 지점에 우뚝 솟아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마을주민들과 채용생 속초시장을 비롯 많은 내빈들이 함께 했다.

마을 원로 박용훈(86세) 옹에 따르면, 마을 형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배모양 행주형(行舟形)으로 배의 닻에 해당하는 돌탑을 마을에 세워 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왔으며, 약 400여년 전에 축석된 것으로 추정된다. 돌탑 주변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 기능을 했으며, 이에 돌탑정이라 불려왔다(1996년 설악신문 ‘상도문 돌탑정 복원 바리’ 보도).

돌탑(행주석범)이 상도문1리 마을문화유산으로 다시 서기까지 1996년 박용훈 옹의 복원 제안, 이후 마을 총회에서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09년 돌탑터 조성 및 돌탑표지석 설치, 2010년부터 3년차 공사로 돌탑 조성 진행, 2012년 완공, 지난 5일 준공식으로 이어지는 마을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2009년 통장직을 맡으면서부터 돌탑 복원사업을 진행해온 오세권 통장은 “조선말 선비 오윤환 선생의 일기와 마을회의 자료, 지명 확인 등을 통해 돌탑 복원이 이뤄졌다”며 “마을의 안녕이 곧 장수의 비결이다. 장수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돌탑복원에 사업비가 쓰이도록 뜻을 함께 해준 마을 어르신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통장은 또, “강원도 무형문화재 20호 도문농요 전수관 완공을 앞두고, 행주석범(돌탑)과 속초8경 학무정, 한옥마을 등 상도문1리의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후세들과 탐방객들에게 지역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설악산 아래 상도문1리의 아름다운 정취를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2008년 돌탑터 마을 문화유산 복원 기본계획을 세우기도 했던 마을 출신 박무옹 속초문화원장(73세)은 이날 준공식에서 “행주석범은 둑(돌탑)을 달고 나아가는 배를 뜻하는 것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후손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을주민들의 뜻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설악신문>은 지난 1996년 돌탑 복원을 제안했던 박용훈 옹과 돌탑터 현지 방문 취재를 통해 ‘상도문 ‘돌탑정’복원 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지난 2009년 돌탑터 복원 및 표지석 취재를 담은 ‘향토 문화유산 지키기 13년간 노력 끝에 첫 결실’ 기사를 통해 상도문1리 마을문화유산 복원활동을 17년 간 함께 해왔다.

- 하민숙 / 일일 명예기자

설악신문 09. 06. 15

## ▶ 돌감자들, 대청봉에 오르다

◇장학회, 희망·용기 주는 산상 기념식 박무옹 회장 등 33명

돌 위에 감자꽃을 피우자. 산비탈 돌 틈 사이에서 어렵사리 예쁜 꽃을 피우는 감자꽃.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 되는



돌감자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는 취지로 발족한 돌감자장학회. 그 뜻 깊은 34회 기념식이 지난 6일 오후 1시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 정상에서 열렸다. 이날 일흔을 앞둔 장학회 박무옹(69세, 속초시 도문동 거주) 회장과 친우들, 멀리 캐나다에서 귀국한 가족, 어린 초등학생 등 전국에서 달려온 33명의 장학생 가족들은 오전 7시 오색에서 출발해 대청봉까지 4~5시간 이상 험한 산길을 오르느라 비지땀을 흠뻑 흘렸다. 뿌듯한 마음으로 대청봉에 오른 돌감자장학회 가족들은 산 정상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모두 11명의 돌감자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고, 격려의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를 기획한 돌감자 장학회 박무옹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장학생들에게 땀흘려 산 정상에 오르는 수고로움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10월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있던 박무옹 회장이 박봉을 쪼개 어려운 학생들을 돋기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딛은 돌감자장학회는 34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국내 학생 11명과 중국 흑룡성강 연수현 연수조선족중학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회장은 지금도 장학회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천리를 멀다 않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달려가 어려움을 함께 하고, 해마다 중국으로 직접 찾아가 조선족 장학생을 격려하고 있다. 장학회 가족들 모두에게 일년에 몇 차례 안부전화를 통해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

- 엄경선 프리랜서 기자

### III. 내가 달인이다

마을 구석구석 다니며  
도문동을 빛내는 생활의 달인...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 1. 손빨래의 달인 - 김창녀

의식주 문화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옷을 만들어 입는 것만큼 세탁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옷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이나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이 있다.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화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손빨래의 달인이 이 마을에 있다기에 찾아가 보았다. 상도문에는 미을 아래쪽에 빨래터가 존재하고 있었고 마을에서 단 한 분만이 이곳에서 손빨래를 고집하고 있었다. 지금은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 작은 속옷 양말에서 큰 이불까지 세탁기 한 대로 빨래를 하지만, 오래지 않은 과거엔 개울가에 모여앉아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아낙들의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기도 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김창녀 할머니는 올해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셨다. 속초 청대리에서 21살에 시집와 도문동에서만 계속 생활하셨다는 김창녀 할머니는 도문동이 너무 좋아 다른 곳으로는 나갈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신다. 그런 할머니께 손빨래에 대해 여쭈어보았다.



마을 조사를 마친 후 김창녀 할머니와 함께

조사자 :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녹음도 좀 하고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구술자 : 머 말할까 있어야지

조사자 : 아 괜찮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빨래를 거기서(빨래터) 하신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 예

조사자 : 그 거기서 빨래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이 있으세요?

구술자 : 거기가 좋아요.

조사자 : 네?

구술자 : 거기가 물이 좋아요.

조사자 : 물이 좋다고요?

구술자 : 네 물이 너무 좋아요. 겨울 되도 장갑이 필요 없어요.

조사자 : 따뜻한 물이 나와요?

구술자 : 물이 뜨뜻해요. 아주 뜨겁진 않아도 미지근 해가지고 빨래 하나씩 하나씩 주물러 서 떠바리 해가지고 이고 아기 업고 일하면서 주물리고 주물리고 앉아서 거 가서 방망이로 두두리고 주물럭 주물럭. 아기를 업었으니 다리도 아프지 빨래는 왜 그렇게 무겁던지 주물럭 주물럭 그곳은 물이 뜨뜻해가지고 빨래는 개깃 하셔너 때가 얼른 빼지지.

조사자 : 다른 어머니도 거기 가서 다 빨래 하셨어요?

다른 구술자 : 암여, 다했어요.

조사자 : 그러면요.

다른 구술자 : 이제 다 세탁기로 하지.

조사자 : 어머니는 세탁기 없으세요?

구술자 : 나는 세탁기 있는데 주물러 주면 때가 더 잘 나가는거 같애. 방망이로 턱탁 두드리면 언놈에 때가 아야아야 하면서 다나가는거 같애. 그럼 빨아서 널으면 너무 뿐예.

조사자 : 세탁기로 하면 안 그렇고요?

구술자 : 세탁기는 틀렸어.

할머니께서는 집에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빨래를 고집하고 계신 것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빨래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손빨래 사랑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빨래터로 가서 직접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어제 빨래를 다 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걸레라도 빨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흔쾌히 승낙해주셨다. 빨래터로 가는 길에 할머니의 빨래 방망이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60년이 된 방망이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연세만큼이나 세월의 흐름을 고스라니 간직한 빨래 방망이가 새롭게 보였다.



60년 된 할머니의 빨래방공이

빨래터에 도착을 하여 할머니의 빨래 시범도 보았고, 조사자 중 한 명이 빨래 체험도 해 보았다. 생각보다는 어색한 방망이질에 할머니와 조사자들이 박장대소하였다. 지금은 비누를 비롯한 세제가 잘 발달되어서 세탁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특별한 세제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빨래를 했는지 할머니께 여쭈어보았다.

조사자 : 빨래를 하시면 비누칠 같은 건 안하세요?

구술자 : 비누칠은? 옛날에는 메물을 때 가지고 했지.

조사자 : 어떤거요?

구술자 : 메물!

조사자 : 메물이요?

구술자 : 불 때 가지고.

조사자 : 아! 메밀이요?

구술자 : 그래 메밀 쟈를 반혀서 밑에 물을 부어 거기다. 빨리 주물러. 잣물 그게 잣물이지 거기서 주물서 가지고 바쳐서 그리고 개울로 가지. 그런데 그걸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엄청 무거웠어. 방망이로 수건을 때리니깐 텔썩털썩 주물럭 쭈물럭 하면 때가 쭉 빠져요.

조사자 : 아~ 잣물 만드는 거 다시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구술자 : 메물 집을 태워 가지고 그게 바구니 같은 대다가 밭어 쟈를.

조사자 : 그냥 나두면 물이 생겨요?

구술자 : 그 밭은 것을 부어 가지고 그 물에 걸려 가지고 이제 빨래를 빨아 그럼 때가 쭉 빠져

조사자 : 메밀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되요?

구술자 : 다른 건 안 돼.

조사자 : 왜 메밀만 될까요?

다른 구술자 : 벗집

조사자 : 벗집!

구술자 : 난 벗집을 안해 봤어. 메물에는 무슨 게 나와서 때가 잘 배껴져. 그거는 태우면 미끈미끈 하거든.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비누와 세제가 없던 시절에는 메밀 재를 태워서 물에 걸을 때 나오는 물. 잣물로 빨래를 하였다고 한다. 버튼 하나로 세탁에서 탈수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요즘과 비교할 때, 빨래를 하기위해 잣물을 만들고, 빨래를 가지고 빨래터로 가서 흐르는 물에 적셔서, 방망이 질을 수십 번 해야 겨우 한 가지 빨래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 할머니들이 어떠한 어려운 생활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속초시 도문동의 80세가 되신 김창녀 할머니를 60년을 한결같이 손빨래를 고집해 오신 손빨래의 달인으로 인정한다.



학생들이 직접 옛 빨래 모습 체험

## 2. 농요의 달인 -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도문메나리농요 기능보유자 오순석



도문동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도문메나리 농요라는 것이 있다. 강원도 민요 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 삼척, 양양, 속초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고 한다. 도문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짹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파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도문동에서 현재까지 농요를 전승하고 계시는 오순석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농요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다. 도문동에서 태어나 75세가 되신 할아버지는 힘든 소년 시절을 보네고, 서울에서 영화일도 잠깐 하셨다고 하신다. 20대에 마을로 다시 돌아와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요를 배우게 되셨다고 한다. 할아버지께 도문농요에 대한 것들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소리요 소리를 언제 배우셨어요?

구술자 : 그래 그거 소리가 특별하지. 소리를 내가 인재 어떻게 배웠느냐하면, 내가 20대에 20대 그 때부터. 일을 그전에는 지금은 인재 이 농사법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모를 심어놓고 이 약을 치잔아. 제초제. 모르는 걸 심으면 짐을 못 나기 위해서 약을 쳐 그 약을 치면은 풀이 안나니까. 짐은 안 때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 그 짐약 치는게 없어 가지고 손으로 했었던 말이야. 이 손으로 다 손으로 했어 전부 손으로 옛날엔 손으로 했으니깐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짐을 맸지. 그런데 없어진거야. 없어져서 저기로 간거야. 시베리아를 그냥 넘어간거지. 그냥 넘어갔는데, 그 옛날 옛날이 아니라 요즘에 학생들 대학 교수들이 문화재를 발굴을 하러 갔었어. 며 또 궁금한거 있어?



오순석 할아버지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조사자 : 소리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구술자 : 어 이젠 돌아가셨는데, 김남형씨라고 그거도 그 양반이 혼자만 알았어. 딴사람 도 금방 못했어.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돌아 가셨는데, 김남형씨라고 고종이라고 있었어. 돌아가셨어 근대 문화재를 만들라고 문화재를 으. 이제 그 대학교수들이 그 문화재. 예전에 짐을 메면서 힘들어도 들어가니까 힘을 또 덜 들기 하려고 또 한 거야.

조사자 : 소리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구술자 : 소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그 그에서 일하면서 어허허 일하면서 자동으로 배우게 되었지. 짐을 매면서 짐을 매면서! 소리를 인제 했으니까 내가 배운거지.



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우리가 추가로 조사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초도문농요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속초 문화원에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3차에 걸친 조사 사업으로 도문동 지역의 메나리 농요를 채록 수집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0회 강원민속 예술축제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열린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속초도문농요를 전국에 알렸다. 2007년 2월에도 문화재로 지정 되었고, 2008년에 속초도문농요보존회를 결성하여 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 받아 향토민속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다하고 있다.

도문농요는 신목과 서낭대를 앞세우고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서낭굿”을 시작으로 ‘소 모는 소리’ 이기도 한 “논 삫는 소리”가 이어진다. 소 두 마리가 끄는 한스레로 농사를 짓는 도문동은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한다. 이어서 “모 찌고 심는 소리”가 이어진다. 모지는 소리는 ‘한춤소리’라고도

할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농사법의 밀달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요가 밭굴되어 복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웃대 기능 보유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오순석 할아버지만이 유일한 전승자라고 볼 수도 있다. 1차 조사에서 할아버지에게 여려 이야기를 듣고도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현장 조사에서 도문농요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다. 농사의 전 과정에 노래가 함께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마을 분들 전체가 농요의 전승

하는데, 모를 묶어 놓은 것을 한 춤이라고 한다. 모를 찌고 나면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 심는 소리’를 한다. 모를 심고 나면 그 사이에 난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것을 ‘김매기’ 혹은 ‘논매기’라 한다. 도문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김매는 소리”는 고된 농사의 어려움을 달래는 소리이다. 김을 매고 나면 새를 쫓는 과정이 나오는데 바로 “파대치기와 새 쫓기”이다. 파대는 짚을 꼬아 만든 긴 줄을 휘둘러 그 소리로 새를 쫓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쉽지 않았다. 파대를 쳐서 새를 쫓고 나면 추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부르는 소리가 “한단소리”이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나도~~ 한단 넘어간다!’라는 소리가 흥겹게 들리기도 하였다. 추수가 끝나면 벼를 털어 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마댕이’라고 한다. 이 때 하는 소리가 “마댕이와 벗가리 지우는 소리”이다. 태돌을 쳐서 떨어진 벼 날알을 다시 도리깨로 지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또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벗가리 지우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농사의 전 과정이 끝나면 마을 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을 관람하니, 그 내용과 의미들이 정말 쉽게 잘 다가온 것 같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전통이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우리 전통과 민속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도문농요 공연 후 발굴단 학생들과 함께

### 3. 생활 국악인 - 서은석

도문동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도문메나리’라는 농요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문메나리 말고도 국악을 전공해서 전문적인 연희가 가능하지만, 전업으로 연희하지는 않는 분이 계신다. 도문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시는 서은석님이 바로 그 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국악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 국악원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연주 생활을 마감 했다고 하신다. 그 후 서울에서 도문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야 다시금 악기도 연주하고, 대학도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음악인으로의 삶과 식당 주인으로서의 삶이 공존하고 있는 서은석님에게 여러 가지를 여쭈어 보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공연활동 중인 서은석님

조사자 : 국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구술자 : 국악은 음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애. 우리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시험보고 들어가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때가 시험 보러 가면 그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하나? 나는 애들하고 공기놀이도 못해보고, 고무줄도 못해봤어요. 중학교 때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기, 이화, 진명 아니면 잘 생각을 안해. 그 때는 가야(과외)야. 지금은 학원 많죠? 옛날에는 이 두리반 같은 상. 동그란 상이 있어. 그런 상에 앉아가지고 5~6명이 앉아서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 그게 과외 공부야. 학원은 없었어요. ...중략... 그랬다가 내가 아파가지고 경기 중학교를 못갔어요. 근데 저 우리 과외 선생님 친구가 국악 학교에 있었어. ‘공부를 잘하면 우리 학교로 보내라.’ 그래서 거길 가게 된거야.

조사자 : 그럼 국악중학교와 국악예술중학교는 다른가요?

구술자 : 음. 약간 분위기가 틀려요. 거기(국악예중)는 민속악을 하고, 우리(국악중)는 궁중 음악을 하고. 우리는 국비로 나라에서 돈을 주고 가르쳤어. 우리는 돈을 받았어. 월급 받았어. 지금처럼 중학교가 아니라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양성소라고 돼있었어. 키우는 거야. 말하자면 음악전문으로 키우는 거야. 그랬다가 거기서 평균 60점 아래는 무조건 퇴학이야. 고등학교를 못 올라가. 그니깐 뽑을 때 60점 이상을 뽑아. 내가 들어갈 때는 15:1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들 정리가 돼요. 못하는 애들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고3을 같이 올라가요. 그게 접한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취미가 있어서 그건 아니고, 근데 개중에는 그 “난 하고 싶어서, 난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반에 물어봐도 하나도 없었어.

조사자 : 집안의 반대는 없었나요?

구술자 : 있었죠. 좋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이쪽을 간거야. 과외 선생님의 권유로 가라니깐 부모님이 반대하지. 밥 먹다가 장구를 연습해야 하는데 밥상을 젓가락으로 두드린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냅다 집어 던진 거야. 학교가서 공부하라고 했지, 왜 밥상머리를 두드리냐고 많이 혼났어요. 나이가 먹으니 밥상도 두들기고, 책상도 두드리고, 다 두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국악 중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나라에서 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중학교 과정이지만 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를 일찍부터 키우는 교육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니, 지금의 영재 교육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셨으니 아마 실력도 어마어마 하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보았다.

조사자 :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몇 가지 있으십니까?

구술자 : 제가요? 관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어요. 타악기가 있고 그러면 현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더 말하면 해금? 거문고는 타악기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친다고 거의 줄로 하는 것은 거의 다 만지고, 다음 관악기 단소라고 들어 보셨어요? 그거하고 태평소, 장구는 기본이고, 장구하려면 장단부터 리듬부터 박자 이걸 해야 하니깐 기본 이야. 국악을 하려면 장구를 배워야돼. 내가 하고 싶은 악기가 아쟁인데 못하고 있어. 저게 옛날 같지 않고 악기 값이 웰케 째?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덤벼들지 못하고 국악선생님들도 드물고 내가 올라 다녀야 되는데 서울까지 그렇게 안되더라고. 이건(거문고)싼거야 180만원. 거문고를 하겠다하면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또 못 가르켜 주는게 값이 만만치가 않아 학습비는 안 받아도 악기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써먹을 수가 없잖아 이 다음에 악기 살수있는 형편이 되면 악기 들고 오세요. 가르쳐 줄테니깐.

조사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구술자 : 우리학교는 대학교를 가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때는 가정형편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는 애들은 가고 더구나 서울대를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못가는 사람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국악원에 가서 해줘야 될 것도 있었어. 국립국악원. 어휴~ 무상으로 6년을 졸업했는데 가서 어느 정도 돈 받으면서 국악원 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못했지.

조사자 : 활동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구술자 : 시집을 가는 바람에 결혼을 하면 남의 여자가 돼서 남의 집을 가야해. 결혼해가지고 나는 할 줄 알았는데 그 집이 무당인가? 무당연유를 받아서 내가 다락방을 다 가둬 놨어. 그리고 나서 하나도 못 만져봤어.

조사자 :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구술자 : 계기는 이 마을에 와가지고 도문동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안 만졌어요. 텔레비에 국악 프로그램이 나오면 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카톨릭 신자예요. 병원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 병원 가서 수술 받고 나니깐 카톨릭 신자니깐 나도 모르게 기도했지 나아서 나아지고 신발을 신는다면은 내가 그때 단소만 부르고 다녔으니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봉사활동 다니겠다고 했어. 무료로 봉사활동 하기로 했어.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따라다니면 봉사활동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야. 진짜 봉사활동 하려 다니는 줄 알았어. 무료로 근데 그 사람이 써먹을려고, 봉사활동이었고 우리는 행사만 해준거야.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은 다 돈 받은거야. 다 시는 해주고 싶지 않고 혼자서 지금은 조용히 아까 말했듯이 누가 악기 들고 와서 “나 서울 못가요 가르쳐 주세요.” 는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 계기는 그렇게 됐어요. 기초가 중요해요.

중·고등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국립국악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결혼과 함께 국악 연희를 그만 두어야 했던 사연을 들었을 땐, 약간 서글프기도 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국악에 전념하다가 가정환경에 의해 꿈을 접어야했을 때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후에 도문동에 내려와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동해에 있는 한중대학교에 전통음악과가 생겨 만학도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서은석님은 올 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신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대학 졸업 후 국악 관련 활동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술자 : 글쎄요. 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럼 대학원까지 가야지 하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하지만 아직 또렷하게 하고 싶은게 없어요. 장사를 하니깐. 장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사자 : 생업과 국악 활동 중에 어떤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술자 : 맞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장사하면서 나는 이걸 많이 알리고 싶어요. 우리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잠깐보시면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여기는 전국구잖아. 우리는 이 다음에 라도 생업하고, 이거하고 연결 돼서 하는거 보다도 국악학교 같은거, 조금만 아니면 관광 왔다가도 나는 서울에서 뭐 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관심이 가지.



서은석님과의 짧은 조사에서 옛날에는 예술을 전공하는 학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여자의 몸이기에 결혼과 동시에 꿈을 잃고 살아 왔지만, 다시금 대학도 졸업하면서 꿈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창 꿈을 꾸어야 할 중학생의 신분으로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 IV. 내가 찾은 미래전통

도문동마을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조사



# 1. 짚풀공예



본인이 만든 작품으로 짚풀공예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오세주 할아버지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은 쌀 이지만, 그 부산물은 벗짚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벗짚을 동물의 사료로 많이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벗짚을 이용해 생활도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발에 신는 신발도 만들고, 물건을 담는 가방도 만들고, 마당에 깔아두는 명석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실생활에 사용된 것이 벗짚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어서 ‘짚풀공예’란 이름으로 농한기에 농부들이 소일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조사자인 도문동 역시 짚풀공예가 발달해 있었고, 아직까지 그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마을에서 짚풀공예의 라이벌격인 두 어르신을 만났고, 각각 다른 모둠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두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하였다.

홍천 태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도문동으로 들어와 살게 되셨다는 79세의 김동현 할아버지(이하 구술자 1)와 도문동에서 태어나 80세가 되도록 살아오신 오세주 할아버지(이하 구술자 2)가 우리의 구술 조사 대상이다. 두 분 모두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하셨는데, 짚풀공예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짚풀공예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짚풀공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술자 1 : 짚으로 만든 게 그거야. 짚 모자 그리고 짚으로 만든 신발 짚신 또……. 짚신종류 중에서 노파리. 노파리가 뭐냐 하면은 말이야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 어 그런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그 미투리, 미투리는 만들어 냈다가 흰 어연버선에다가 명절 때만 신는 신발이야 그리고 산의 갈 때 허리에다가 차는 짚 종다라기 이거는 산에 짚이나 나물 뜯으려 갈 때에 쓰는 거야. 또 뭐가 있나, 망태라고 있는 데 도시락을 넣어서 다니는 배낭 아니면 가방 이게 짚 망태야. 이 건은 일 나갈 때 호미도 넣고, 뭐도 넣고 그래 맷방석. 맷방석은 방석에다가 맷을 갈아서 넣는 거야. 그리고 저 뭐야 짚 소 이거는 전시용. 이건 전시용으로 만들어서 보여 주는 거야. 또 물병도 있고, 탑 탑은 3층탑, 5층탑, 7층탑 종류가 다양해~에. 또 멍!! 멍이 뭐냐 하면은 소가 밥을 못 먹게 입에다가 묵는 것 그냥 짚 명이라고 적어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구술자 2 : 짚풀공예에는 모 여러 가지 있지. 뭐 뭐 명석도 내고 짚신도 삶고 모 비가 오면  
은 비 안 맞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사자 : 어떤 시기에 주로 하십니까?

구술자 1 : 보통 겨울에 하지 겨울에.

구술자 2 :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일하다보면 바쁘잖아. 그러면  
뭐 비가 오거나 뭐 또 그리고 겨울철에는 뭐 한가한데 뭐 그런거.



할아버지들의 말씀에 의하면 농사 기간 중에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농사가 끝난 겨울에 주로 짚풀공예를 하신다고 한다. 사전 조사에서 농부들이 겨울철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신다. 물론 지금은 마을 회관에 모여서 함께 작업을 하지만, 과거에는 각자의 집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짚풀공예의 재료가 되는 벗짚은 어떻게 구하고, 관리 하였을까? 역시 할아버지에게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짚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공예품이 잘 만들어지는 짚이 따로 있나요? 보관은 어디서 하나요?

구술자 1 : 가을에 논에서 타작을 할 때 구하지. 타작하고서 그 짚을 잘 놔뒀다가 쓰는거야.  
그리고 잘 만들어지는 짚은 바로 찰 벗짚이야. 왜냐하면 찰 벗짚이 길이가 길고  
부드러우면서 질기거든. 길이가 길어야 손이 덜가지.

구술자 2 : 짚을? 짚을 이제 농사지어서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나오는게 되잖아. 이제 그때  
쓰면되지. 그래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회관에서 공동으로 하지. 조 아래 마을  
창고가 있어. 거기서 따로 보관하지 지금은.

그냥 아무 벗짚으로 짚풀공예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찰벼라는 벼가 있는데 일반 벼보다 길이가 길고 질겨서 짚풀공예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농사를 짓기도 하신단다. 그리고 보니 쌀에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다. 찹쌀도 있고, 쫄쌀도 있고, 보리쌀도 들어본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쌀이 있겠지만, 그 벗짚으로 다 짚풀공예가 가능한지는 물어보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짚풀공예는 벗짚을 사용한다. 그냥 벗짚 자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벗짚을 1차 가공한 형태인 새끼줄을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신다. 그래서 새끼줄에 대한 것과 작품 당 소요 시간에 대한 것들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새끼줄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오른새끼입니까 왼새끼입니까

구술자 1 : 새끼줄은 손으로 꼬아서 만들지.(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신다.) 각자 나름대로 만들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새끼 왼손잡이는 왼새끼로 꼬아. 벗짚을 조금씩 쥐고 손으로 비비듯이 돌리면 새끼줄이 만들어지지.

조사자 : 어르신 만의 새끼줄을 잘 꼬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1 : 물에 담가놓고 잘 다듬어야 돼. 물에 담가둬야 부드러워지거든. 그래도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망치로 쿵쿵 찍지. 망치로.

조사자 :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구술자 1 : 보통 하루가 걸려. 3층탑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고,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지 뭐. 거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 그 작은 거는 1시간 만에 만들고 짚종다리기처럼 큰 거는 좀 오래 걸려 한 콩 두되 정도 되는 양이 나오는 별 짚의 양으로 만들라고 하면 하루 꼬박 새어 가지고 겨우 만들어 나는 손이 빨라서 하루만에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손이 늦은 사람들이나 시작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이틀이나 하루 반 만에 만들지~이.

조사자 : 탑 같은 건 더 오래 걸리겠어요?

구술자 1 : 3층탑 5층탑 7층탑 크기에 따라 다른데 3층탑을 하루에 다 못 만들어 하루 반 만에 걸려 그 탑이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하루 반 만에 만드는 데 내가 하루 반 만에 다 만들잖아.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만들어. 저기 마을에서 짚풀공예 하면은 내가 일등, 저 강원도 대회에 나가면 내가 강원도 일등, 노인 짚풀공예 대회에 나가도 일등, 다른 마을이랑 대회 열어도 내가 일등, 어디 대회만 나갔다고 하면 내가 일등 아니면 이등이야. 그리고 경시대회에 서도 맨날 일등 해. 그리고 짚신을 못하는 사람이 하면 하루에 세 컬래 만들어. 나는 하루에 다섯 컬래 만들어. 아!! 맞다 그리고 짚 우장도 적어놔 우장은 짚으로 만든 우비 같은 거야 우비.

구술자 2 : 작품에 따라서 그리는데. 뭐 짚신 같은 건 하루에 2컬래 밖에 못 만들어.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두 분의 말씀이 달랐는데, 빨리 만드는 것과 잘 만드는 것은 다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짚신을 만드는데 하루에 2컬래를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드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들과 직접 새끼줄을 꼬고, 뭐라도 하나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걀 꾸리미를 만드는 것이 제일 쉽다고 하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 봐야겠다. 생활용품이면 사용 기간도 있을 것이다. 요즘은 신발 하나로 몇 년도 신지만, 짚신은 얼마나 신을까? 이것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작품의 수명은 몇 년 이에요?

구술자 1 : 우장은 3년에서 최고 많을 때가 이제 4년.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수명이 짧고 비가 많이 안 오는 해에는 수명이 짧지. 그리고 지개는 산에 많이 올라가면 빨리 해지는데, 산에 많이 안 올라가면 덜 해지지. 그리고 이 공예품 중에 한 부분이라도 빠져 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못써. 한 부분이 빠져 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빠져 버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

조사자 : 아 그럼 이게 다 연결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빠져도 다 빠지는군요?

구술자 1 : 어 어 그러지.

조사자 : 그러면 짚 미투리는 신발이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짧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수명이 짧은가요?

구술자 1 : 아니 미투리는 명절 때에 한번 신는 신발이라서 일반 신발 보다 수명이 길지. 일반 짚신은 한 보름을 신으면 다 닳아서 못써. 근데 미투리는 1년에 하루 신고 나서 창고에다가 다시 넣어두니까 짚신 보다는 많이 쓰지. 그러니까 미투리는 일반 신발보다는 수명이 많이 길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엄마는 일을 하러 갈 때에는 맨날 짚신만 신었지. 우리 마누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때에는 신발이 비싸니까 짚신만 신었지. 글리고 시방 운동회 할 때에는 다 맨발로 뛰고 그러지 뭐. 그리고 너네들은 맨발로 모래 위에서 걸으면 발 아프지? 우리는 맨날 맨발로 걸어 다니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그리고 그때는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책보가 있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책을 놓고 보자기 싸듯이 쌈 다음에 허리춤에 차고 하교에 가는 거야. 너무 어려우면 책을 싸는 보자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학교에 갈라고 하면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거든. 여기에서 속초에 갈라고 하면은, 맨날 학교에 가는 길이 거의 마라톤이지. 그래서 내가 어릴 때에는 맨날 마라톤을 한셈이지. 마라톤 그거 있잖아 단거리 100m는 여기 한 바퀴 돌면 100m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쏘는 총 있잖아 그 총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잖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판매 수익금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배분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니까, 그것을 판 돈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할아버지들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보다. 마을 전체의 일이라 생각하고 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와도 닮은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도 이해는 안가지만 공동체 생활을 해 오신 마을 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된다.

생활 용품을 만들 것이 발전하여 공예의 영역으로 넘어온 ‘짚풀공예’를 조사하고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생활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던 옛날이 살짝 부러워졌다.

## 2. 놀이문화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환기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가생활이다. 여가 생활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놀이가 다른 의미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호이징아와 까이와라는 인류학자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놀이적 인간에 대한 고찰을 다양하게 밝혀왔다. 우리의 조사지인 도문동에서도 옛 놀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신 분이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도문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80년을 살아오신 이산옥 할아버지를 만나서 옛 놀이에 대한 것들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예전에 어르신이 어린 시절에 대한 놀이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구술자 : 우리 어린 시절에 놀이라는 것은 한 8살 9살 그때 그전에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서 컷으니까. 지금은 세대적으로 밝아져가지고 4, 5살이면 자기 율동도 나름대로 춰할 수 있을꺼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하잖아 근데 그맘때에는 7살 정도까지는 엄마 품에 안겨서만 살다 시피했어. 그리고 이제 8살 9살 이제 되면서, 어 예를 들어서 저기 저 그때가 일본정치 때인데 이렇게 종이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또 그다음에 인제 가을쯤 되면 제기차기 응 또 그 다음에 인제 저기 그 이따금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말노름이란 걸 하더라고 말놀음 대여섯 명이 두 편을 갈라가지고 6명이면 3명 3명 갈라가지고 한명은 여기다 이렇게 붙들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붙들고 한명은 여기다 이렇게 붙들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붙들고 이제 가위 바위 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부터 타기야 뛰어가서 타기 그 다음 놈 타고 또 그 다음놈 타고 막 짜부어러지고 깔고 올라갔고,

그래 이런 장난 그리고 인데 그다음에 에 나무인제 겨울이면 팽이라는 것 팽이 알죠?

조사자 일동 : 네!

구술자 : 에 그걸 가져다가지고 얼음장판에서 하는 거야. 엄마가 불리야 밥 먹으로 빨리 와라 이럴때 까지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팽이만 치는 거야. 겨울엔 이렇다고 놀이 라는 건 또 이런 정도!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엔 컴퓨터도, 게임기도 없던 시절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들로 놀이를 하셨을 꺼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할아버지께 직접 듣고 나니 새삼 새롭게 느껴졌다. 지금은 어떤 행사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제기며, 딱지치기를 직접 하시고 놀았다니 그게 재미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신 놀이가 일반적인 놀이기에 겨울에 하는 다른 놀이가 있는지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겨울에는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구술자 : 겨울에는 뭐 저기 그 짚었을 때는 할 게 없고 얼음이 얼면 팽이를 치고 했지. 그리고 삼각스케이트를 했었지. 학생들은 잘 모를 거야 삼각 스케이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스케이트 같은 거는 없으니까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탔어. 근데 어떤식으로 되있느냐 하면(삼각모양, 할아버지께서 그림으로 직접 그려주셨다.) 소나무를 이런 걸 딱 4별로 째기면 삼각형 모양형식으로 나온다고 한 면은 발 놓는 데가 되고, 이 밑에는 못 박는거야. 두 개를 양쪽에다 박아놓으면 이렇게 나와 있지. 나와 있으면 빼뜯는 거야. 그리고 철사로 묶어 놓는거야. 이걸 즐기고 타는 거야. 빙구는 알죠? 무릎을 끊고 타는 것이야. 근데 이것도 어머니가 “야 와서 밥먹어라” 하면 가는 거야 추운 것도 모르고.

조사자 : 빙구와 스케이트가 뭐가 다른가요?

구술자 : 빙구는 앉아서 스케이트는 일어서서!

조사자 : 팽이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구술자 : 보통 그 나무가 없는데 팜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팜나무라고 하거든 감나무를 팜나무를 접을 붙이는 거야. 과일을 따서 팜나무 과일을 따서 열忤다가 땃다 월忤다 땃다하면 엄청 맛이 있다고, 팜나무로 팽이를 만드는거야. 깍아서 그리고 얼음 창에 가서 돌리고 다른 팽이를 쓰러뜨릴라고 거기서 치는 거야. 가면 “쉬이이이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한번 꽉치면 쓰러지는 거야 내 팽이는 살고 다른 팽이는 툭 떨어지는 거지.

조사자 : 네! 그러면 짱치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구술자 : 저런 나무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휘어진 것은 여기서 짱 방망이를 다른데서 나무로 만들어서 했는데 나무를 둥그스럽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는 새끼를

꼬아 가지고 째개 치면 사람이 맞으면 아프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새끼를 꼬아서 맞아도 조금 덜 아프라고 그러다가 이제 짠다고 “야 너네 일나와” 이렇게 그러면 나와 있어 그리고 돌로 빙판위에서 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지?

조사자 : 하키요?

구술자 : 어~그래 하키! 하키 갑자기 생각이 안나가지고. 하키 같은거야.



겨울이 되면 얼음 위에서 팽이를 치고, 빙구를 타고, 짱치기를 하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했다. 사전 조사에서 선생님께 빙구와 짱치기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 여쭈어 보지도 못했을 놀이들이다. 이때 새삼 질문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결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놀이 이외에도 옛날에는 수렵 놀이도 하였다고 한다.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상 산과 강을 가지고 있으니 수렵 놀이도 많았을 것 같기에 수렵 놀이에 대한 것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겨울에는 동물잡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술자 : 저 꽤지는 못 잡았고, 귀해졌어. 눈이 왔다 하면 많이 와. 그러면 사람은 설피라는 걸 신는다고 짐승은 이런 쪽발이니까 안돼. 사람이 빨리. 눈이 많이 왔다하면 사람이 충분히 쫓아간다고 아까 뭇대로 잡는거지. 이렇게 찔러서 잡거나 뚜드려 잡는 것이지.

조사자 : 토끼몰이는 어떻게 했나요?

구술자 : 할아버지가 많이 잡았어요. 이때는 많이 있어 소나무가 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곳에서 낮잠을 잔다고 토끼가 빨라서 도저히 사람은 못 쫓아가 소리가 들려서 뭇대를 가지고 찌르는거야. 으 이걸로 그렇게 잡아야지 도저히 못 잡아. 눈이 오면 토끼사냥을 가는 거야. 토끼는 몇 발 못 사면 그러면 목을 잡은거야. 노루는 눈이 와도 떨어져 가고 있는 배이 닿을 정도면 잡아. 안 닿으면 못 잡아 개천으로 몰아야되. 그래서 한번 잡아봤어.

조사자 : 새잡이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술자 : 새는 가을에 조먹이가 나오면 뿌려놔서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걸로 그걸로 그리고 끈을 매놓고 가만히 숨어있는 거야. 7~8마리정도. 아 이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끈을 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물로 덮어놓고 한 마리씩 꺼내서 잡아먹는거야. 고기가 아주 맛이 있어.

조사자 : 네!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구술자 :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물고기 잡이를 안했어! 못했어.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되니까 6.25전쟁이 났다고 했는데 그때 7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살 되니까 냅가에 송어가 많이 올라 오는거야. 은이라는 게 있죠. 은어가 처음에 올라올 때는 조그만한데, 보름 한 20일정도 되면은 한 크게 된다고. 그럼 그거는 대나무에다가 철사를 가닥 해가지고 그 저 은어잡이를 하는거야. 송어 잡이는 저기 할아버지가 도구를 갖다 놨잖아 저거 학생 저거를 가져와봐.

조사자 : 이거요?

구술자 : 어 그거하고 물안경 있지 어 다 가져와 바요. 다일로 가져와 바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송어잡이를 하던 도구야 이게 어떻게 하냐면 물안경을 쓰고 물을 보는거야. 그럼 저기 송어가 있잖아 어 저기 있자나 그러면 찌르는거야. 여기 건너가엔 장대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다음이 설악산. 그 그러니까 상도문 3개 마을에서 둘째가 맨 서러운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가면 친구들이 봐 놓고는 날 찌르자고 불러 그 이거는 3개 마을에서 1등이라고 봐야 했던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는거야. 흐흐흐



이산옥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수경

조사자 : 할아버지 그러면요 송아 잡이나 은어 잡이는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구술자 : 그러니까 여기 상도문이고 버스타고 오면 벼락바위라는 더마있죠 거기서부터 비선대 까지 대청봉 바로 옆이야 신흥사에서부터 바로 올라 있자나.

조사자 : 이 도구의 이름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구술자 :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뜻대 라고 하는거야. 이건 물안경

조사자 : 잡은 은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구술자 : 그건 매운탕이 엄청 맛이 있거든. 왜 맛있냐고 그러느냐 저 바다에서 나오는 은어도 그렇지만 아까 예기하던 송어가 있지 한 마리로 매운탕을 끓여먹으면 5-6명이 전부 먹는다고. 크니까 충분히 먹는데 바다에서 사 가지고 먹는 맛 하고는 매운탕 자체가 틀려 맛이 틀리다고 그렇게 맛이 있어. 그리고 금방 못 먹으니까 소금에 져려먹었어. 하룻밤 있다가 그리고 그걸 구워 먹었어. 소금이 오래들려 있잖아 바다에서 잡은 거랑 똑같아. 매운탕하고 소금구이하고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지금도 만약에 보호구역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출입이 되면 지금도 잡으러 갈 생각이 있다고 올라온다고 하면. 흐흐흐

조사자 : 매운탕 또는 은어를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외의 송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술자 : 계속 절궈나서 계속 구워 먹는거지. 송어도 같이하는데 은어도 근데 솔직히 너무 짜져서 니맛도 내맛도아냐. 흐흐흐 짠고기라고 해도 그때 밥쌀이랑 먹으면 맛이 있어. 근데 그때 감자밥 먹고 살았잖아. 그나마 그 고기 반찬이라도 된거야.



송어잡이에 쓰였던 뭇



壑의 앞부분



은어잡이에 쓰였던 작살의 앞부분

이산옥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말씀을 잘 하시질 못하시고, 아시는 것을 모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시며, 쌍천에 대한 소개와 어종, 어렸을 적 쌍천에서 즐겼던 놀이에 대해 글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쌍천강의 상류는 설악의 명산 대청봉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계곡, 양폭을 거쳐 비선대로 흘러 폭포와 돌방석으로 되어있어 놀이터로 좋은 장소로 되어있으며, 와선대로 해서 정구로 내려와 저항령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수하여 반찬바위를 지나 신흥사 앞을 지나 내원과 울산바위 쪽에서 물과 합수한 곳을 삼걸이라 하였으며, 여울로 내려와 토왕성폭포에서 흐르는 물과 합수하여 깊은가라는 소를 만들었고, 총총대 여릉을 지나 댅이마끌소 장승백 여울을 거쳐 벼루소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박소를 지나 상도문마을로 내려와 나란히 소가 아래·위에 있어 쌍계소라 하였으며, 보통 부를때는 (남자, 여자)소라 하였습니다.

여울로 조금 내려가다 훈겨소가 있으며, 이어서 벼락바위소가 여름한철 놀기 좋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여울로 이어져 내려가다 중도문 앞에 길게소가 만들어져 있어 늘개소라 하였으며, 조금 내려가다 하도문 앞에 깊은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똑갑소라 하고, 여울을 조금지나 바다로 유입되면서 쌍천강은 여울로 흐르다 강이되고, 서서히 흐르다 급히 흐르고 이렇게 하여 약 12km 정도 길이로 맑고 깨끗하게 이루어집니다. 서식하는 어종으로는 뚜거리(돌뚜거리, 무당뚜거리), 버들치, 산천어, 뱀장어, 가재 등이 사계절 서식하며, 사월부터 구월사이 비가 많이 와 물이 흐르면 바다에서 송어, 연어, 은어 등이 올라와 여름동안 쌍천강의 맑은 물에 서식하다 가을에 산란하기위해 올라오는데, 하루를 지나 물이 맑아지면 사가리의 주민이 고기잡이를 합니다. 4~5명으로 짹을 지어 고기잡이 도구를 가져가 올라가며 고기 있을 곳을 보면 물이 돌에 부딪쳐 흰 거품이 생긴 다음 맑은 곳에 자연스럽게 놀고 있다가 발견되면 쇠로 만든 웃으로 찍어 잡습니다. 2일 내지 3일이면 거의 잡하고 남은 고기는 전부 바위 밑으로 숨어버리고, 여름동안 잡하지 않은 송어, 연어, 은어는 가을이면 알을 산란합니다. 송어와 연어는 강에서 생애를 맞이하는데, 은어는 강물과 바다사이 모래에 산란하고 다시 바다로 갑니다. 사계절 서식하는 뚜거리는 돌에 붙어사는 벌레를 잡아먹고, 뱀장어는 뚜거리 같은 어종을 잡아먹으며, 산천어와 은어는 나무에서 떨어진 벌레를 먹고사는 것을 물안경을 쓰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근 사개 마을 주민은 삼월 말부터 농사준비를 하며 사월중순이면 씨앗을 뿌리고, 오월중순 모내기가 끝나면, 오명에서 팔명 정도의 인원으로 강놀이를 갑니다. 준비로는 쌀, 장, 야채 등을 가지고 그물로 만든 족대, 철사로 만든 작살, 쇠로 만든 웃, 물안경을 가져가 오전 중 보막소부터 고기를 잡으며 설악산 B지구 앞 총총대 여울까지 가며 고기를 잡고, 나무그늘 밑에 자리를 잡은 고기로 매운탕을 끓이고 밥을 해서 먹고, 소나무 그늘 밑에서 한숨자고나면 농사일에 쓰였던 피로가 모다풀려 그 다음 날 부터는 몇 일 동안 가벼운 몸으로 일을 하다 또 피로하다 싶으면 똑같이 반복하며 여름을 보내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고기잡이 하던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쌍천강에서 약 삼십오년 정도 송어와 은어잡 이를 하며 누구보다 이들의 특성을 잘 알기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송어는 오월중순부터 비가 많이 와 쌍천강의 흙물이 나가면 반드시 올라오는데, 소가 은은한 곳은 별로 머물지 않고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급하고 물살이 산 곳을 좋아하여, 그런 곳을 보면 물이 돌에 부딪쳐 거품이 하얗게 진 곳에 자리를 잘 잡으며, 평온할 때는 거품 끝 맑은 부근에 자유롭게 놀고 있다가 물안경으로 보면 눈알이 뻥뻥 도는 것이 보이며 지느러미가 빨리 움직이면 도망갑니다. 고기가 거품이 인 곳에 들어가면 물안경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찌르다 놓치면 그 부근 바위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리며, 이것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 오늘 삼거리에서 한 마리 놓쳤다면, 그 다음날 꼭 다시 찾아 잡아도 보았습니다. 은어 잡이는 여울에 있는 것들은 돌을 던져보다 바위 밑에 숨게 하고, 물안경을 쓰고 보면 모다 숨어 있어 착살로 찍어냅니다. 소에 있는 은어는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소가 깊어도 안 되고 얕아도 안 됩니다. 깊으면 사람이 은어를 따라갈 수 없고, 얕으면 목이 물에 잠기질 않아 안 되고, 맞는 깊이는 물이 허리에 오는 소가 좋습니다. 은어를 따라가는데 걸어서 따라가야 뒤따라 갈 수 있으며, 가다보면 돌아서고 또 가다보면 돌아서 가고 할 때 착살을 뒤에 대고 따라가다 돌아설 때 팍 찍습니다. 그러면 열번에 아홉 번은 맞아, 약 한 시간 정도면 삼사십 마리를 잡을 수 있으며, 간혹 뱀장어도 한두 마리 정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송어를 잡을 때는 보통 3~4일 정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삼사십 마리정도 잡아 나누어 먹었으며, 수량이 적어 바위 밑에 숨어버리면 찾아내기가 힘들어 모다 포기하는데, 어쩌다 한 마리 남은 것이 발견되면 제 뜻에 고기가 맞아 손을 곱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쌍천강이 좁아서 여름 장마철에 피해를 자주 보면서, 강을 넓히고 재방을 쌓고, 속초가 발전되면서 물부족으로 급수장을 설치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쌍천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쌍천 :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를 이룬다. 하류 물치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져 흐르기 때문에 쌍천이라고 한 것 같다.(출처 : 속초의 지명 58p)

여름에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겨울이면 산에서 토끼, 노루를 잡고, 새도 잡고 하는걸 보면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떠오른다. 모든 놀이기구는 다 손으로 직접 만들고, 야생에서 채집하여 먹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눈앞의 할아버지가 직접하신 경험일까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산에서 버섯과 나물도 함부로 못 캐는 세상이지만 할아버지가 사시던 옛날에는 다 가능했나보다. 그렇게 자연과 함께 놀아 오셔서일까?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한 모습이시다. 조사가 끝난 후 우리들도 밖에서 좀 놀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다.

### 3. 술 빚기

술은 중학생인 우리들에게 아직은 금지된 음식이다. 그래서 인지 조사와 채록을 하면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 조사에서 술에 대한 역사를 공부 했는데,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었다.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종류도 무지하게 많아서 각각의 제조 방법을 아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였다. 역시 도문동에서도 술을 직접 빚어 보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를 여쭈어 보았다. 올 해 76세가 되신 윤복동 할머니는 전통 생활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술에 대한 기억도 잘 가지고 계셨다. 두 번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각각 다른 모둠이 조사를 하였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복동 할머니를 대상으로 마을조사하는 모습



조사자 : 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가 있으십니까?

구술자 : 술의 이름이? 술 이름은 막걸리, 동동주가 있어. 동동주하고 막걸리. 동동주는 맑게 이렇게 어디서보다 모르겠지 막걸리는 그냥 빚어서 그냥 짜는거고 동동주는 여... 주물러서 짜는거지.

조사자 : 술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술자 : 쌀하고 물하고 누룩밖에 안 들어가.

조사자 : 재료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구술자 :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마련하지.

조사자 :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술자 : 누룩이지 누룩.

조사자 : 술을 만드는 그릇이나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구술자 : 응. 옹기그릇. 옹기 단지에다가. 그리고 또 쌀을 실어가지고.

조사자 : 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술자 : 응, 술은 만드는 과정은 처음에는 쌀을 물에 담그고 다 불면은 7, 8시간 불려가지고, 시루라는게 있어 그 시루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술이 안되니깐 오두막을 한다면 짜. 다음에 그 솔잎 산에 솔잎 있지 솔잎을 넣고 짜가주고 그 다음에 그 파악 시킨 다음에 우리가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잖아? 물이라는 걸 잡아. 요 올려두는 거야. 그게 이제 말려야지되.

조사자 : 그렇다면은요. 소주를 직접 내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술자 : 응 그렇지 내려본 적이 있지.

조사자 : 있으시다면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구술자 : (잘안들려서 안됨)어....막걸리를 때워 놓고 거기다가 단지를 놓고 (항아리) 뿔을 대면 나오는 김이 있잖아 이걸을 받아서 먹는게 소주야.

조사자 : 수증기요?

구술자 : 응응 그래 수증기가 올라 와가지고 받으면 이게 소주가 되는거지.

조사자 : 많이 째겠네요?

구술자 : 그럼 아주 많이 째지.

동동주와 막걸리가 있고, 막걸리를 항아리(소줏고리)에 끓이면 나오는 수증기가 소주라고 하셨다. 누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룩에 대한 것도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 사전 조사 를 하여 알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로서 분쇄한 밀이나 쌀·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모양을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켜 만든다. 누룩은 술을 빚는 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에 따라 모양이나 제조법에 차이가 있어, 서울 및 영남지방에서는 원료를 반죽하여 헝겊에 싸서 틀에 넣고 단단히 밟아 짚으로 쌓 다음 온돌에 퇴적하여 만들고, 호남이나 충청도지방에서는 퇴적하는 대신에 실내에 매달아 둔다. 형태도 서울 및 영남지방의 것은 편원형이 많고 호남이나 충청도지방은 원추형이나 모자형이 많다.

보통 퇴적한 것은 4, 5일, 매달아 둔 것은 10~30일쯤 걸려서 만들어진다. 개량식의 경우는 밀가루에 물을 섞어 원반형태의 덩어리를 만들고 약 10일간 40°C에서 발효시킨 후, 건조실에 옮겨서 서서히 건조시킨다. 이것은 재래의 방법에 비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연중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누룩은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뿐만 아니라 형태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누룩의 자름이 너무 짧으면 수분이 쉽게 발산되어 균이 잘 침투하지 않아서 숙성이 불량하고, 너무 얕으면 단시일에 숙성되나 향미가 좋지 않고 주박(酒粕)이 많아 주량이 적어진다.

너무 두꺼우면 내부의 수분이 발산되기 어려워 내부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제조 후 건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제법이 까다로워 신미(辛未)·을미(乙未)·경자(庚子)에 만들면 좋고, 목일(木日)에 만들면 술이 시어진다는 금기가 있었다. 또한 누룩은 맑는 정도에 따라서도 질에 차이가 있으며, 누룩의 질은 술맛과 직결된다.

술은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 중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음식이다. 소모되는 재료의 양에 비해 결과물이 작고, 그 효과가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술의 제조를 금지시키기도 했고, 술 만드는 일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고 하니 술은 대단한 음식인가보다. 술은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소주, 맥주에서부터 지역의 이름이 걸려 있는 술도 있고, 서양에서 유입된 술도 많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술. 어른이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다.

## 4. 떡 만들기

떡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음식이다. 곡식으로 할 수 있는 음식 중 그 정성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과 떡이다. 그러나 술과 떡은 곡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시기가 되면 꼭 해먹는 음식이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한 사전 조사를 통해 떡의 역사를 알아보았다.

떡의 기원을 문헌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곡물과 도구 등의 유적 발굴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멀리는 신석기 시대를 떡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떡의 가장 보편화된 조리법을 짜는 형태로 보았을 때, 짜는 떡의 등장 시기는 청동기시대 또는 초기 철기시대로 보는데, 이는 청동기 유적지와 초기 철기 유적지에서 떡을 짜는 시루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떡은 거친 잡곡을 잘게 부수어 지지거나 시루에 쪄서 보다 쉽게 먹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이 정착되었고 떡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배계층들 부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농업의 사회적 정착으로 제천의식의 발달해 떡이 제례음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는 권농정책으로 양곡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일반 백성에게도 곡류 중심의 음식이 발전하였고, 떡은 상류층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환영 받는 별식이 되었다. 때문에 이전 시대에서는 제례음식으로 여겨지던 떡이 절기 때 먹는 절식(節食)으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몽고와 같은 외국의 문화와 교류하면서 떡의 종류와 조리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농서 간행을 통한 농업기술의 육성으로 곡물의 품종이 다양해졌고 생산량도 증대했다. 따라서 떡의 주재료가 될 수 있는 곡물의 종류가 풍부해졌고, 조리서의 발행으로 식품가공 및 조리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떡 문학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떡 문학의 변화는 조선 중·후기에 편찬된 『음식디미방』, 『규합총서(閩閣叢書)』, 『요록(要錄)』, 『시의전서(是議全書)』 『부인필지(婦人必知)』와 같은 조리 전문서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와 같은 농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들 문헌에 약 200여 종의 떡이 소개되어 있다.

근대에 이르러 모든 가치관과 전통이 서양과 일본의 신문물 유입과 함께 급변하는 상황에서 떡 문학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식품사적으로는 이 시기에 서양의 빵과 과자가 처음 도입되어 별식이었던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떡을 대체하게 되었다. 떡은 우리 식문화에서 차지하던 지위를 잃고 일부 중요한 행사나 관혼상제에 의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로 축소된 채 생산된다.

해방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을 넘어 이제는 1인 가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불어 주거형태도 아파트가 일반화되어 더 이상 가정에서 떡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경제적 풍요로움도 증대되어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식생활 측면에서 간편하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떡은 새로운 건강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다양해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맛, 모양, 소재 면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퓨전 떡과 서양의 제과기술에 비견 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떡 공예도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한 음식이 떡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문동에도 떡에 대한 기억을 가지신 분이 있어 조사를 진행 하였으나, 1차 조사에서 진행이 돼서 그런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확한 채록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도문동의 떡 문화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했던 한 할머니의 기억과 경험에 대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 도문동으로 시집오신 황순진 할머니는 올 해 61세가 되셨다. 우리가 조사 했던 다른 제보자에 비해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 할머니는 도문동 도로변에서 옥수수와 과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친절히 응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조사가 되지는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할머니와의 조사 내용을 채록본으로 정리해 보았다.



황순진 할머니

조사자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마을 분들이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으십니까.

구술자 : 황순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조사자 :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술자 : 61살 됐지요.

조사자 : 이 마을에서 오래 동안 사셨습니까?

구술자 : 41년 정도 살았어요.

조사자 :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면 언제 이 마을로 시집 오셨습니까?

구술자 : 40년 전 쯤에 왔지요.

조사자 : 이 마을에서 만 사셨습니까? 다른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셨습니까?

구술자 : 아니요 인천경기도 왔어요.

조사자 : 떡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술자 : 송편, 백설기, 기정, 시루떡, 찰시루, 실편, 절편 떡은 많지 뭐.

조사자 : 떡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구술자 : 내가 해요.

조사자 : 떡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술자 : 행사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하지.

조사자 : 특별한 날에 떡을 해먹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술자 : 손님상에 놓으려고, 보기 좋으라고 하지요.

조사자 : 떡에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술자 : 쌀, 팥, 콩이 들어가요.

조사자 : 재료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구술자 :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마련하지.

조사자 : 떡을 만드는 그릇이나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술자 : 따로 있지. 떡시루 네모처럼 생겼어요. 본 적 없나?

조사자 : 떡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술자 : 쌀을 담가서 갈고, 시루에 넣어서 찌면 되지.

조사자 : 고명이나 고물이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구술자 : 떡 하는데 따라서 다르지.

조사자 : 고명이나 고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구술자 : 떡 하는데 따라서 다르지 .

조사자 : 고명이나 고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술자 :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조사자 : 계절별로 해 먹는 떡이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술자 : 겨울에는 떡국떡을 하지. 행사마다 떡의 종류가 다르지 뭐.

조사자 : 떡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요즘 복숭아랑 옥수수만 팔다보니까 떡도 잘 안만 들고 말이야. (허허허)

조사자 : 가장 많이 만드시는 떡이 뭐예요?

구술자 : 가장 많이 만드는 거라면 시루떡 하고 인절미 같은 것이 있지.

조사자 : 가장 많이 쓰시는 떡이 뭐예요?

구술자 : 음. 인절미지 떡국에도 들어가고 끝도 찍어먹고 말이지.

조사자 : 가장 화려한 떡은 뭔가요?

구술자 : 음. 무지개떡이지.

조사자 : 무지개떡의 색은 어떻게 내세요?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 밭굴단 – 도문동

구술자 : 초록 색깔은 쑥과 녹차가루 같은 초록 색깔이 나는 것을 넣어 반죽해 만들고 빨간 색깔은 오미자 같은 빨간색 계열의 열매로 즙을 내어 만들고 노란 색깔은 단호박을 넣고 보라 색깔은 자색 고구마를 뺏아서 넣고 반죽해서 만들어.

조사자 : 가장 힘드신 일은 무엇이세요?

구술자 : 굳이 따지자면 솔을 짚기는 일이지. 할머니가 늙어서 많이 힘들어.

조사자 : 떡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구술자 : 가끔씩 체험활동으로 배우려고 하지만 딱히 배우려는 사람은 없어.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러 오면 되겠다.



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사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드신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지개떡에 대한 설명에서는 각각의 색깔을 내는 방법을 들을 때 재밌다고 생각했다. 녹차와 단호박으로 색깔을 표현 한다는게 신기하기도 했다. 집에서 빻을 굽기는 하지만 떡을 만들지는 않는다. 주위에 보이는 떡집에서 사 먹는, 사실은 잘 먹지도 않는 떡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할머니가 계시기에 우리 떡 문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들도 다음에는 떡 만들기 체험이라도 해보아야겠다.

## 5. 옷 만들기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옷을 구입한다. 매장에서, 온라인에서 자기 취향대로 마음껏 사서 입는다. 물론 핸드 메이드라는 이름의 명품이 있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최고의 옷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계가 옷을 만들기 전까지는 누구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도문동에서도 그 당시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역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올 해 69세 이신 마금주 할머니(이하 구술자 1)와 76세 이신 윤복동 할머니(이하 구술자 2)를 만났고 옷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구술자 2 : 저 비단은 포목점에 가서 끊어다가 제단해서 해 입었어요. 바지 조끼 할아버지들은 마고자, 마고자도 했어요. 호박 단추 두 개가 돼고. 마고자라는 거는 저고리 입고 그 위에다가 입는거야. 지금으로 치면 옷 위에는 코트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도포는 베로 하는 거고 두루마기는 옥양목이나 대드름 하얀 걸로 하는거고. 목화솜 있지? 그걸로 실을 짜 가지고 목화솜이 빨겋게 익은 거는 나쁜 거고 하는거야.

조사자 : 옷감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구술자 2 : 길쌈 있지? 삼베 심어서 나무를 키워서, 그거를 벗겨 만들어져 가 가지고 삶아서 물려져 가지고 그 벗긴 걸로 베틀로 가서 베틀로 짜. 또 무명옷은 또 물래라 하는지 그래 가지고 실을 빼 가지고 베틀로 해 가지고 실로 짜 가지고 또 했어뭘. 나 일통 침 가지고 만들면은 여기서 하면은 하지만 그물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 마구를 하나씩 만들어 빨간 색깔에는 어 뭐라고 했나 그 속에 아주 쪘금 나오잖아. 아! 석류 아 그걸로 물들였어. 그걸로 석류을 찌우면 빨간물이 나와 그걸로 했어. 그리고 까만 옷을 해 입을 려면 그 도토리 있지 도토리를 삶은 물이 있지. 그게 껌껌해 그러면은 그거를 논 있잖아. 지금 심어 논 그거 파고 거기다가 천을 묻어 그거 하루쯤지나 면은 그게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들어 그래 가지고 까만 옷이 우리옛날에 그렇게 했어. 지금은 다 도토리라 부르지 불암이라고 하지는

않지. 그냥 건물에다 삶으면은 그냥 껌추해. 그걸 또 땅에 가다 묻으 면은 아주 쐐까메. 까마개 물들어 왜 논에 다가 묻나면 논흙에다가 넣으면 쐐가메 지나봐. 어 그래서 그렇게 새까마개 물들어 입었어. 파랑색은 안했어. 노란색은 치자로 해서 입었어. 옛날에는 뭐있나? 뭐 순수 하면 베짜서 하는 거는 너무 길어. 예네들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삼나무 가져와서 삼꽃이라는 거기 있어. 삼째를 짹뺐다 그걸 덮어 불로 몇 일째서 아주 때가 말랑말랑 하게 그걸 벗기면 그게 짹 벗겨져 그걸 잿물로 삶아 하얗게 만들어 지면은 그다음에는 돌게달로 해 가지고 예네들로 뭐 해가지고 그건 그렇게 과정이 길어 과정이 길어서 이해가 안 간거야.

비교적 자세한 기억을 하고 계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금주 할머니는 조사장소 옆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채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야기를 자세히 담지는 못했지만, 역시 옷을 직접 만들어 있은 기억을 가지고 계셨다.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은 시내 포목점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직접 삼을 삶거나 누에를 키우고, 목화를 키워서 실을 뽑아 쓰기도 하셨다고 한다. 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염색도 직접 하셨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천연염색을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검은색을 만들기 위해 논바닥에 땅을 파고 묻어 놓았다고 하니 신기했다. 하지만 천만 가지고 옷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실과 바늘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것들은 어떻게 마련 하셨는지도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실과 바늘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시집올 때 마련해 오신 겁니까?

구술자 1 : 그..저..잡화점에서. 그렇지.

조사자 : 시집 올 때 마련해 오신 겁니까?

구술자 1 : 그렇지. 지금 학생들은 모르지?

조사자 :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구술자 1 : 반진고리 ‘자’ 자 ‘ㅈ’에 디귿받침해서 반진고리에 저 옷 만드는 거 다 들어있지.

조사자 :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구술자 1 : 실, 바늘, 천, 가투리, 가위고 뭐고 짹 다 들어가지.

조사자 : 실은 색깔을 어떤 것을 사용하셨나요?

구술자 1 : 그 옷감에 따라서 다 다르지, 그 뭐 삼색 들어가지 까만거, 하얀거, 뺨간거, 노랑, 청색 이런 거 기본으로 다 했지. 실은 면이 좀 많고, 나일롱 실도 들어있었고, 주로 면실을 많이 썼던 거 같애. 면은 맥이 없어서 똑똑 끊어지는데 나일롱은 안 끊어지거든요!

조사자 : 바늘도 종류가 많잖아요?

구술자 1 : 옛날엔 아들 때는 눈이 밝으니까 가는 것 썼는데 지금은 다 굵은 걸로 했지

조사자 : 실과 바늘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시집을 때 마련해 오신 겁니까?

구술자 2 : 바늘은 사서 썼으니까 바늘은 안 만들어 봤지 실은 명주. 저... 누에알아? 누에.

누에가 이제 한잠, 두잠, 세잠, 네잠, 일주일 머금으면 입에서 실이 나오잖아.

그러면 자기가 집을 짓고. 저 번데기가 돼서 고치가 돼서 그러면 그거를 따 물에다가 고치를 넣고 돌리면 실이 나와 그러면 그걸 펴 가지고 명주실해서 썼어.

베도 그렇고.

조사자 : 시집을 때 옛날엔 반진고리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구술자 2 : 어여 반진고리 해가지고

조사자 : 그 안에 어떤게 들어있어요?

구술자 2 : 거기 뭐 뭐 들어있었냐면. 실 한 보태기 싸고, 또 천 이렇게 옷하다 남은거 굽은거 있잖아? 그런거 하얀천 노란천 그런거 한보태기 싸고 바늘을 많이 사 가지고 오지. 작은바늘, 이불 꼬매는 바늘. 중간바늘해서 많이 사 가지고 왔지. 반진고리 안에 반진쩔개 라고 하지. 거기다가 바느질 하고선 꽂아 놓고 하는 거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면 머리카락이 들었어.

지금은 사라지다시피한 반진고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반진쩔개’라는 단어도 처음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번엔 이어서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옷을 입기만 했지 만드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고, 지금의 기성복이 아니라 아마도 한복을 만드는 것이었을 텐데. 조사를 진행 할수록 할머니들이 더욱 대단해 보였다.

조사자 : 계절 별로 만드는 옷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술자 1 : 겨울은 노인 분들을 위해 솜을 넣었지. 그 옷이 솜옷이라고도 해요. 그 솜을 옷을 만들어 꽉 깔고 드문드문 누벼 갔고, 안 떨어지게 누벼서 옷을 훌렁 뒤집어 입었고. 그게 옷이 되지. 솜은 솜집에도 있고 한복집에도 있었고. 나중에는 시장에서 많이 사서 입었지. 계속 뭘 사다 입었지만 그게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조사자 : 옷 종류별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구술자 1 : 천을 끊어 와서. 저고리가 쉽게 되는게 아니잖아. 뒤판은 뒤판 대로 오려야 되고 옷판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양들이 팔은 팔대로 앞이 오고 따로잖아. 등판을 따로 하고, 그걸 다 본 떠 가지고 한군데다가 기워야지. 기우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게 곱게 해서 뒤집어 봐야지. 제작 순서는 저고리, 등판하고, 앞에 꺼 두 개하고, 팔따로 하지. 치마는 통으로 그냥 주름을 잡고 바느질해서 되면 끈이 되어야 하잖아. 그냥 앞치마 모양 길게 해 가지고 그냥 하면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한복을 했지 뭐. 아주 옛날은 아니니까 아주 아주 힘든건 없었고 이제 하다가 뭐할 때 하지 저 고리는 거의 같아. 남자 바지는 어렵지.

조사자 : 사람에 따라 옷 치수는 어떻게 잡니까?

구술자 1 : 그땐 자가 있나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재버려. 그때는 실로 아니면 그냥 끈으로 쟁어.

조사자 : 계절 별로 만드는 옷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술자 2 : 여름에는 베옷, 모시 그 옛날에는 겨울에는 관목, 베양목 그래 뭐 지금처럼 신식옷이 나오지 않았어. 그때는 어... 한 노인네들 솜 넣어서 바지도 요기는 솜을 안넣고 했어. 위로만 했어 저고리도 저고리는 근데 이 바지는 요만침만 솜했지. 저고리는 그걸 천을 사다가 내 몸에 맞게 해면은 하루에 다해. 하루 아침에 하면은 다해. 솜씨가 좋은게 아니라 늘 일상에 있던건데. 바지 저고리? 제단은 메지수가 어느 정도 알잖아. 그걸로 천을 적어서 놓고 떠가지고, 소매는 소매대로 뜨고, 질은 질대로 하고, 거기서 고름도 다했지. 다른 사람 옷은 내가 제단해서 하지 않았어. 옷 입는거 보고 거기에서 보고 한거야. 그땐 내가 우리 시아버지 모시 바지 저고리 뭐 이거 뭐 내가 이런거 내가했어. 그땐 비싼 재봉이면 짹 좋았어. 벼선도 만들지. 벼선을 종이로 천을 보고 그래 벗을 맨둘래 오른쪽건 맨 아래 그래야 솔귀가 맞아. 그거다 순대로 박음질해야지 지금은 재봉틀에다 하니까 빨리하지 벼선에도 솜 넣잖아. 고따다 솜을 넣고 여지 솜을 하면은 이쁘지뭐.

우리옷 한복이 과학적이라고 하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다. 사전 조사에서 서양식 정장은 서 있는 사람 체형에 맞게 입체식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활동성이 부족하고,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한복은 몇 개의 조각 천을 이어 붙이는 것으로 평면식 디자인이 이기 때문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다.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니 한복이 제작의 간단함과 보관의 용이함을 갖춘 과학적인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씩 선생님께서 생활 한복을 입고 올 때면 어색하기도 했는데, 한 번쯤은 한복을 입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수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돌아가신 분이 입는 마지막 옷인 수의도 직접 만들어서 입었다고 하니 어리둥절했다. 아직은 죽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이라서 그런지 수의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옷이기에 할머니들에게 여쭈어 보았다.

조사자 : 수의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 해주세요.

구술자 2 : 수의? 난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시아버지 께는 만들어봤어. 베를 사다가 만들었어. 그때는 우리가 베를 안 짜기 때문에 베를 사다가 수의 만들면 그 수의도 속바지, 겉바지, 베를 세 번 안에도 속저고리, 겉저고리, 그러다가 두루마기를 입히든지 도포를 입히지. 제사하는데 입히는거 있잖아. 도포를 잘 보관한 사람은 그 뭐 반짓푸리 밖에 못쓴다고 못 가져가. 근데 깨끗하게 쓴 사람은 그걸 매일 입혔다 갖고가.

조사자 : 수의에 또 뭐 들어가나요?

구술자 2 : 손싸개, 빨싸개, 손톱깍기, 빨톱깍기, 다 들어가. 진물 나오니깐 다 깍아서 넣어. 겨울에는 흙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머리 시신 밑에 넣어. 이불은 옥양목이나 베나 깔고 요 깔고 이불도 그런 걸로 해놓고 이불은 접이불로 하고 요는 하나 베를 깔고 관에다가.

조사자 : 직접 관에 다가요?

구술자 2 : 성복전일 때 관을 갔다 놓고, 거기다가 요 깔고 시침 넣고 이불 덥지. 거기 열굴 싸. 매는거 여기서부터 열굴 싸고 이 마이를 여기 묶고 요기 묶고.

조사자 : 바느질이 일반 바느질하고 틀린가요?

구술자 2 : 어. 이건 쪼매는 것도 안해. 매듭 한사람 저승 가서 안 풀어진다고 못 매개 해. 꼬맬때 여길 많이 내 나야돼. 빠져나오면 풀리니깐. 기러기를 길게 내나야 한다고 이거 할머니들은 고제이라고 이런거 입히고 치마 속치마 걸치마를 치마말기 를 한대 묶어. 할아버지들 입는 것도 홀으로만 입고, 또 두루마기 입고, 그건 홀껍떼기로 입고, 그건 여름에만 입는 거고. 두루마기는 겨울에 입는 거로 두꺼풀 했고 저고리 하듯이 제사 지내는 도포고... 대부분 옛날에 얘가 시집을 가자나? 시집을 가면 야 어머니가 그걸 해줘. 그걸 평생 입는거야.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걸 가져가 시는 거야. 사주단자도 보내자나 신랑집에서. 그걸 농속 맨밑에 놨다가 이제 아버지가 먼저 죽던지 며느리가 먼저 죽던지 반씩 잘라서 먼저 간 사람이 반 가져가고 반은 나중 사람이 가져간다. 또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가.

조사자 : 수의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 해주세요.

구술자 1 : 수의? 난 어른들 만드는 것만 구경했어. 돌아가신 분 모시는거니깐. 수의 만드는건 구경했네. 나이가 젊으니깐 못 만들게해 수의를. 수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만드는거지. 젊으면 못 만지게 했거든? 풍습이었나봐. 그래서 수의를 어머니 계실 때 아버지계실 때 수위를 날을 받아서 만들어. 미신같은 소리겠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때는 집에 막입는 옷처럼 만들지 못했거든요? 날을 받아. 글 좀 아는 분들인데 뭐 어디 무당한테 갔다가 아니라 하루 이틀은 동쪽으로 손이 간다. 남쪽으로 손이 간다 이러지. 손 없는날 날을 잡아가지고 한 어른들이 다 여섯이 모여가지고... 수의는 날을 밤을 세면 안된데요. 다 만들어야지 하루만에. 그래서 11명 모일 때도 있고, 7~8명 모일때도 있고 모르겠어. 밤만 바느질을 했는지 못 만들어 본거지 뭐. 이 사람하고 똑같애. 산사람 속옷, 걸옷, 두루마기, 베개, 이불, 저고리 등. 있는거 다해, 있는 대로 만들어 보는거지. 산사람하고 똑같아 옷천은 삼베로 하루만에 다 해야돼. 미신같은 말이겠지 만은 밤을 안새운데요. 하다 말고 밤을 안세운데.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하루만에 시작하면 딱 끝이 나야되 쉬면안돼.

조사자 : 수의를 만드는 데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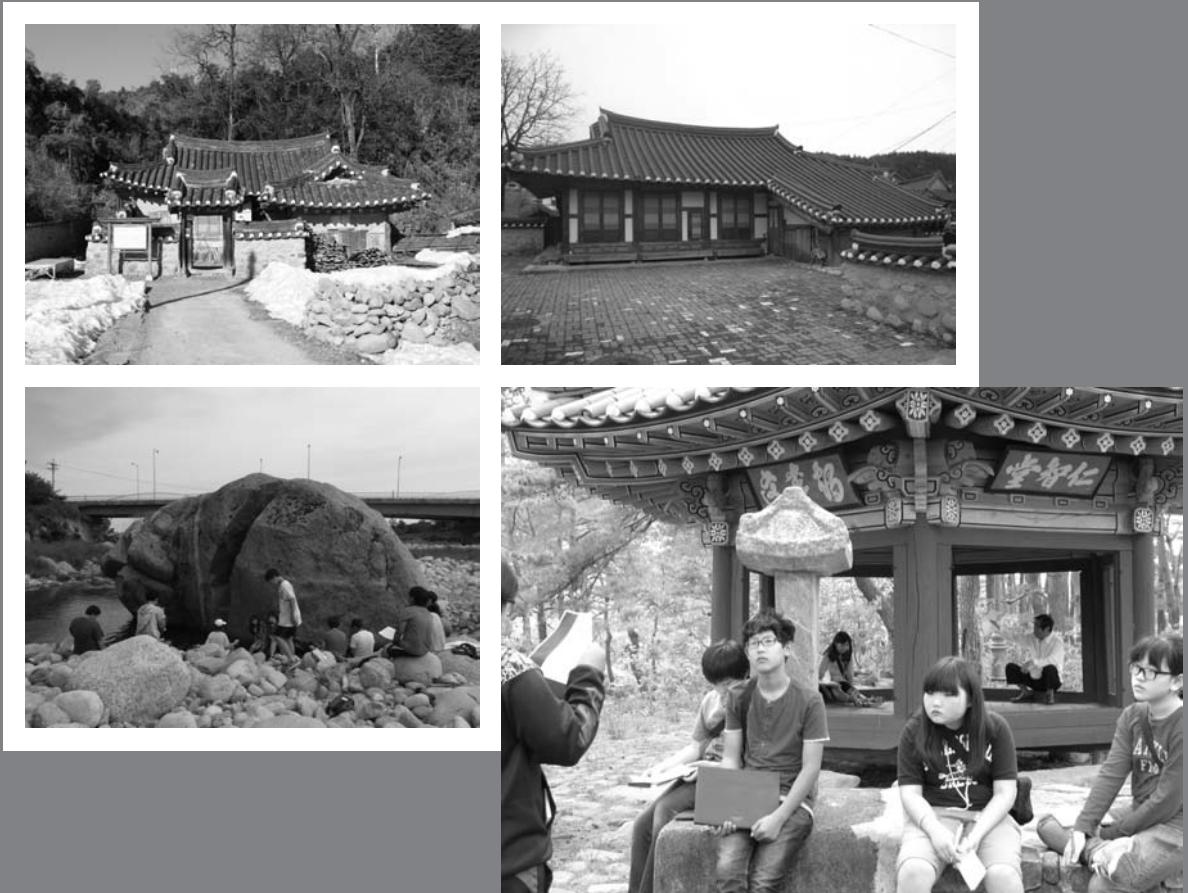
구술자 1 : 그냥 보통 들템 들템 그냥 대충대충 모양만 내서 아직 산사람인 것으로는 곱게는 않았어. 하루만에 바느질 이불까지 이불에 솜을 넣는게 아니라 다 뒤척 뒤척. 근데 만지지는 못했지. 젊은애는 만지지 말라고 전에는 팬티는 다 만들어 입지 그런데 속옷은 풀을 못먹여.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라서 매듭을 매지 않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실도 매듭 없이 바느질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이 입는 것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도 신기했다. 이번 길쌈 조사는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였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단연히 해오신 할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 V. 트레져헌터

## - 스토리텔링으로 만난 도문동

이야기로 창작한 도문동마을의 문화자원



# 1. 벼락바위



도문동은 상도문과 중도문, 하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중도문 마을 입구 건너편 강가에 회색 빛의 큰 바위가 있는데, 흡사 벼락을 맞아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에 벼락 바위라는 이름이 있는 바위이다. 이름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벼락바위를 답사한 우리는 기존에 전해지는 벼락바위 이야기를 각색하여 우리만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 벼락바위 이야기 | 2013버전

- 지은이 : 김하늘, 지준배, 김호진, 유지은, 김규민, 김도윤, 이상혁

옛날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 : 애들아 밥 먹자!

아들 : 우~웅 졸려. 조금만 더 자면 안되지?

딸 : 엄마 오늘 반찬을 뭐예요?

아빠 : (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며)여보 나 왔어! 음~냄새가 좋은데 오늘은 무슨

반찬이야? 엄마 : 다녀오셨어요? 일은 잘 끝났어요? 없는 반찬이지만 우리식구가 함

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방 네 공기에 간장과 김치가 전부인 조출한 밥상이다.)

어느 날 이모가 찾아 왔어요.

이모 : 언니~

엄마 : (깜짝 놀라며) 왜? 무슨 일 있어?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이모 : 김서방이.

엄마 : 김서방이 왜?

이모 : 글쎄 김서방이~

엄마 : 아 김서방이 왜?

이모 : 김서방이 명태장사를 하잖수! 근데 같이 동무하던 규민이 아범이 물건 만들고 야반 도주를 해서 지금 옥에 갇혔다오. 오늘까지 300냥을 못 갚으면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 우리 김서방 좀 살려줘 언니!

엄마 : 어쩌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넉넉한 형편이 못 되서.....

이모 : 아이고, 여보 순이 아부지.....

엄마 : (혼잣말로) 예구, 불쌍한 내 동생 어디 가서 빌려 라도 볼까?

이모 : 언니 우리 순이 아범 좀 살려주오.

엄마 :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우선 집에 가있어.

그래서 엄마는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은 파계승에게 돈을 빌리러갑니다.

엄마 : 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파계승 : 어디에 쓰실려고 그러슈?

엄마 : 동생네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스님이시니 이자도 좀 쌀 것 같고 해서 왔습니다.

파계승 : 푸헬헬! 얼마가 필요하신지요?

엄마 : 300냥이요.

파계승 : 알겠습니다. 급하시다 그러니 일단 빌려드리지요. 하지만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늦으면 큰 이자를 내셔야 될 수 있거든요. 푸켈켈켈.

엄마는 파계승에게 돈을 빌려 이모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모부는 풀려나고, 또다시 행복이 찾아오는가 했던 어느 날 파계승이 찾아왔습니다.

파계승 : 돈은 다 마련되셨나요?

엄마 : 별써 그 날 인가요?

파계승 : 오늘은 아닙니다만, 일주일 후 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엄마 : 죄송하지만, 며칠 더 시간을 주세요.

파계승 : 네 알겠습니다. 며칠 더 드리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 : 무슨 조건인가요?

파계승 : 그때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이자로 받겠습니다.

엄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계승 : 하하하, 안녕하쇼. 돈은 준비가 되셨는지요.

엄마 :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 내일 모레면 다 될 것 같은데요.

파계승 :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자. 이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주시지요.

이때 딸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딸 : 엄마. 빨래다 했어요.

파계승 : (음흉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보며) 푸헬헬, 저 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 (깜짝놀라며) 아니, 사람을 이자로 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될 말입니다.

파계승 : 그럼 돈을 주던가! 푸켈켈켈.

엄마 : 그럼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파계승 : 당신은 이집에서 제일 소중하지는 않소, 그러니 딸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는 도술로 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엄마 :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내 딸을 돌려주시오.

식구들은 파계승 집 앞에서 딸을 돌려 달라며 소리쳤습니다.

파계승 : 난 약속대로 이자를 받은 것뿐이요. 원금 300냥이나 어서 주시오. 어쩌면 이자를 더 받을지도 모르오.

다음날 이모가 돈을 들고 오고, 그 돈으로 파계승에게 갚습니다.

엄마 : 자, 돈 여기 있으니 우리 딸을 돌려주시오.

파계승 : 별씨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딸을 줄 이유가 없소.

엄마 :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내 딸을 돌려받을 수가 없단 말이요?

파계승 : 혹시 모르지 쌍천에 큰 바위가 갑자기 갈라지던지, 죽은 닭이 훼를 치던지, 땅에  
떨어진 별을 주워온다면 모를까. 그냥 돌려줄 수는 없소. 푸헬헬

엄마 : 아니 무슨 그건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단 말이오.

파계승 : 나는 모르겠소. 그리 알고 가시오.

엄마 : (털썩 주저 앉으며) 아이고 내 딸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이고.....

식구들이 쌍천의 큰 바위 근처에 모여 기도하는데 “우루루 쾅쾅” 마른하늘에 천둥이 치더  
니 바위가 짹~억 갈라졌습니다. 바위에 가보니 그 밑에 보물도 있었습니다.

엄마 :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나.

파계승 집에 가서 바위가 갈려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딸을 찾아와서 발견한 보물로 행  
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쌍천에는 그때 갈라진 바위가 놓여있고, 그 바위를 마을사람들은  
벼락바위라 불렀습니다.

벼락바위 전설을 알아보고, 그 바위를 직접 찾아가서  
만든 이야기이다. 비록 작품내용은 기존 전설을 조금  
변형시킨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작품을 만들며 지역의  
다양한 설화를 알게 된 점과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일치시키며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이야기를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기 희망한다.



벼락바위에서 작품을 구상중인 모습

## 2. 오윤환 생가



상도문에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137호로 지정된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가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그자 함경도형 겹집이다. 본체 전면에는 머름대가 있고, 안채 뒤쪽으로 일자형의 방들이 이어져 있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체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뒷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으며, 윗방에는 뒷마루가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후원을 거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위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 매곡 오윤환 선생님의 손주며느리의 이야기...

- 지은이 : 김아연, 강은빈, 김예림, 박혜선, 신성섭, 유정현, 남형재

옛날에 나는 남편과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하였다. 근데 알고 보니 시조부님께서는 매곡 오윤환 선생님이셨던 것이다! 시조부님께서는 학문의 경지가 깊었으나, 욕된 삶을 멀리하는 선생님의 의지가 굳어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고향에서 제자들을 양성 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분이다. 시조부님은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매곡처사’ 또는 ‘오학자’라고 부르는 그런 조부모님을 모시기에는 나는 부담스러웠다.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와 시조모님께서는 “빨래를 해도 다시 빨아라!, 방을 쓸어도 다시 쓸어라! 먼지가 그대로 있다!”라는 등의 말을 계속 반복 하셨다. 나는 모든 일을 다 참아내고 집안일을 했다. 때로는 어른들이 지적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시어머니, 시조모님을 감사하게 느끼며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한 몇 년이 지나고 시조부님께서는 3.1절 독립만세운동을 제자들과 함께 나가신다고 하셨다. 가족들은 반대를 했으나 시조부님은 결국 참여를 하셨다. 시조부님이 참여를 하시니까 남편은 같이 나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남편의 억지를 이기지를 못하였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본경찰에게 검거 되어 곤혹을 치루기도 하였다.

특히 삭발령과 창씨개명을 철저히 반대하신 시조부님은 학무정을 건립하여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론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 그런 시조부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또 한편 걱정스럽고 잘못될까봐 두려웠었다. 혹시나 불상사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조부모님을 항상 생각을 하셨다.

그런데 얼마 후 시조부님은 일본의 경찰들에게 사살을 당하셨고, 사살을 당한 시조부님과 시아버님, 남편의 소식을 들은 시조모님, 시어머님께선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다. 나도 쓰러질 뻔 했지만, 나도 쓰러지면 누가 어머님들을 어떻게 챙길지 생각이 났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들을 모셨다. 남편의 죽음을 진짜 많이 슬펐다. 어린 자식들도 울고, 밤마다 나는 잠자리 들기 전 매일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충격을 버리지 못한 시조모님과 시어머님은 결국 돌아 가셨다. 나와 자식들은 충격으로 휩싸였지만 나는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서는 결국 살아있는 가족은 나와, 나의 자식들 밖에 없었다. 나는 힘을 내서 자식들을 먹이고 살기위해 농사와 일을 열심히 했다. 일을 하니까,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님과 시조모님이 생각이 났다. 나에게 충고를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들을 먹이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항상 일을 할 때 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자식들이 성장하여 벌써 성인이 되었다. 자식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위해서 수도권 쪽으로 나갔고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는 강원도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되었다. 이유는 19세기 전반에 지어진 전형적인 함경도식 그자형 겹집형식의 기와집으로 겹집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전통가옥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사람들과 학생들은 시조부님의 생가이시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공부 또는 조사를 하려고 찾아오긴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다. 지금 학생들이 찾아와서 조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시조부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 하실까? 라고 생각도 듈다.

매곡 오윤환선생님의 작고 년도와 이유도 바꾸고, 할머니의 생애를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여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종가집의 며느리로서의 삶도 고민해 보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의 진짜 삶을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한다.

## VI. 마을보물발굴단 활동 사진자료 및 후기



# 1. 마을보물발굴단이 촬영한 도문동 모습





## 2. 마을보물발굴단 활동모습





### 3. 참여학생 소감문

우리역사는 가치가 있다.

- 설악중학교 2학년 신성섭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5월 2일부터 시작한 마을보물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았다. 맨 처음에는 ‘보물찾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프로그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보물은 아니고 도문동에 가서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오래전 역사를 듣고 채록하는 것이다. 처음엔 지치고 힘들었지만 점점 역사가 알기 쉽게 이해가 되어 신기했다. 8월에 마을보물발굴단 캠프를 갔었다. 거기서 ‘술’에 대해 들었다. 도문동의 전통주는 동동주, 청주, 막걸리가 있는데, 술을 만들땐 누룩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 술 만들 때 수증기가 올라와서 방울처럼 떨어지면 소주가 된다고 들었다. 10월엔 마지막 조사를 했다. 거기서 도문동 어르신들의 도문농요 공연을 보았다.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위해 제사를 지내는 서낭굿, 논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김매는 소리, 파대치는 소리와 새 쫓기, 벼베기와 한단 소리, 마댕이와 벚가리 지우는 소리가 있었다. 진짜 흥이 났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공연 끝나고 파대치기 도구를 이용해 위로 빙빙돌리다 허공을 때리면 뜨~악 소리가 난다. 정말 크다. 누가 뒤에서 콩알탄을 던지는 줄 알았다.

좀 있으면 우리 이름이 들어간 책이 나온다고 하였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아낄 것이다. 마을보물발굴단 괜히 한 것이 아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듣고 쓰는 것이 보물이고, 이야기들이 보물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역사는 가치가 있다.



## 채록이 너무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다.

- 속초중학교 1학년 김도윤

5월부터 마을보물발굴단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학교 동아리를 하면서 몇 번 빠진 적이 있어 아쉬었다.

1박 2일 캠프를 가서 재미있었고, 몰랐던 사실도 알아서 좋았다. 처음에 마을보물발굴단이라는 이름만 들었을때 마을에 가서 보물을 발굴하는 것 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느끼기도 하였다.

벼락바위도 가보았다. ‘설마 바위가 진짜 벼락 맞은 것처럼 째져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바위 가운데가 개져있었다. 사실이었다. 도문동 마을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 도문농요 공연을 해주셨다. 몇 가지로 나누어 계속 한 개씩 보여주었다.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했다.

도문동마을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녹음을 하고, 채록을 했다. 녹음하는 건 간단했지만, 채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났다. 하지만 다 하고나면 기분은 괜찮았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몇 번 더하고 싶다.



## 새로운 경험, 많은 것을 배웠다.

- 속초여자중학교 2학년 신혜지

처음에 마을보물발굴단을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많이 궁금하였다. ‘마을보물발굴단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였다. 처음 발굴단을 시작하는 날, 도문동 마을에 대한 역사와 그 동네에 대한 점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쉬운일이 아니었다.

드디어 처음에 도문동에 가는 날이었다. 맡은 역할로 질문을 하였다. 처음 하는 것인데 나 때문에 망칠까봐 솔직히 겁이 많이 났다. 우리가 한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그것을 글로 옮겼다. 처음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 고비 하나는 넘길 수 있었다.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도 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 과정이 지나니 지금 내가 할 일은 책 만드는 일만 남았다.

마을조사, 캠프 등 마을보물발굴단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솔직히 녹음하면서 할머니들의 말씀이 빨라 고생은 했지만, 그 일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 중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캠프할 때다. 좀 날씨가 더워서 힘이 들긴 했지만 재일 기억에 남는다. 내가 맡았던 짚풀공예, 술, 떡들은 참 힘들었었다. 처음 우리 조가 맡았던 주제는 ‘술’이었다. 할머니께 질문하는데 옛 언어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 듣기도 하였지만, 우리 조는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다음 주제는 ‘짚풀공예’였다. 이에 대한 말씀은 할아버지께서 하셨다. 할아버지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술보단 나았다...^^ 우리가 맡은 마지막 주제는 ‘떡’이었다. 조사 중에 차소리도 많이 나고,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도 많아 마지막까지 힘든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며 혼나기는 많이 혼난 것 같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보람도 큰 느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 도문동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설악여자중학교 2학년 김예림

마을보물발굴단을 한지 7개월. 처음에는 뭐하는 것인지 몰랐는데, 계속하다보니 도문동이라는 마을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엔 도문동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 설악산 주위에 있는 마을이었다.

처음 ‘술’을 조사했는데, 마을 할머니께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나중에 쓸 말이 없었다. 캠프는 친구들이랑 마을을 조사하며 같이 자서 재미있고 좋았다. 마을지도 만들 때도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오윤환 생가도 직접보았다. 주방에 소가 들어가는 것도 알게 되고, 소가 나오는 문도 보았다. 그런데 소가 나오는 문이 너무 작아 신기 했다. 소가 없어 소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집이 좋아 보여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 했다. 마을보물발굴단을 하며 도문동마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 VII. 도문동마을 보물 발굴 참가자들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김청익, 이희진
- 마을조사 특강 : 박찬웅, 김창호
- 현지조사 및 캠프 : 문정혜, 김연숙, 권재현
-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한미영, 김주란, 최현섭
- 참여 학생들

	이 름	학 교	학 년		이 름	학 교	학 년
1	심상률	설악중	1학년	21	강민성	속초중	2학년
2	지준배	속초중	1학년	22	안규호	속초중	2학년
3	김도윤	속초중	1학년	23	유정현	설악중	2학년
4	박원아	속초여중	1학년	24	신성섭	설악중	2학년
5	윤희경	속초여중	1학년	25	강지흔	설악여중	2학년
6	고은영	설악여중	1학년	26	신혜지	속초여중	2학년
7	최지현	설악여중	1학년	27	박혜선	속초여중	2학년
8	강규민	설악중	1학년	28	박소희	설악여중	2학년
9	김하늘	설악중	1학년	29	천유현	설악중	2학년
10	김희영	속초중	1학년	30	김나영	속초여중	2학년
11	이상혁	설악중	1학년	31	권기범	설악중	2학년
12	정호진	설악여중	1학년	32	지우혁	설악중	2학년
13	최유진	설악여중	1학년	33	엄수경	속초여중	2학년
14	정재원	설악중	1학년	34	김영욱	설악중	2학년
15	윤지현	속초여중	1학년	35	장혜린	설악여중	2학년
16	송인찬	속초중	1학년	36	강은빈	설악여중	2학년
17	라유민	설악중	1학년	37	김예림	설악여중	2학년
18	유지은	설악여중	1학년	38	남형재	설악중	2학년
19	최정민	속초여중	2학년	39	남현재	설악중	2학년
20	김아연	속초여중	2학년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표현하는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은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도문동지역의 역사와 삶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며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